

제 1 교시

갈래 복합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네 가는 더 각지 본 듯도 혼더이고  
 ㉠턴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었디호야 니별(離別)호고  
 히 다 더 저른 날의 늘을 보라 가시논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죽 혼가마는  
 었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너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호똥편디

[A]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었디 다르신고  
 누어 싱각호고 니러 안자 헤여호니  
 내 몸의 지은 죄 피기티 빠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호며 사름이라 허물호랴  
 설워 플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글란 싱각 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기튼 얼굴이 편호실 적 몇 날일고  
**춘한고열(春寒苦熱)**은 었디호야 디내시며  
**추일동턴(秋日冬天)**은 뒤라셔 피섯논고  
**죽조반(粥早飯)** **조석(朝夕)** 피 네와 궂티 세시논가  
 기나긴 밤의 좁은 었디 자시논고  
 님다히 소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자 호니  
 오늘도 거의로다 너일이나 사름 올라  
 내 므음 둘 더 업다 어드러로 가쟝 말고  
 잠거니 밀거니 ㉡눅픈 피히 올라가니  
 구름은크니와 안개논 므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었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 리(千里)를 바라보라  
 출하리 물기의 가 ㉢비 길히나 보라 호니  
 브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더이고  
 샴공은 어디 가고 빈 비만 걸렸논고  
 강턴(江天)의 혼자 셔셔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혼더이고  
 ㉣모첩(茅簷) 촌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青燈)은 늘 위호야 불갓논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저근덧 녀진(力盡)호야 **푯좁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호야 **쑤의 님을** 보니  
 옥(玉) 기튼 얼굴이 반(半)이 나마 늘거세라  
 므음의 머근 말습 슬크장 숲자 호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습인들 어이호며  
 정(情)을 못다 호야 목이조차 메여호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좁은 었디 씨똥던고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썬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 이셔  
 님 거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돌이야크니와 구즌비나 되쇼셔

- 정철, 「속미인곡」

(나)  
**가을은 그 가을이** 바람 불고 잎 드는데  
 가신 님 어이하여 돌오실 줄 모르는가  
**살뜰히** 기르신 아이 **옷 품** 준 줄 아소서 <제1수>

부른 배 골리보고 나온 얼굴 병만 여겨  
**하루도 열두** 시로 곧 어떨까 하시더니  
 밤송인 쪽으렁\*인 채 그저 달려 삼내다 <제2수>

**바릿밥\*** 남 주시고 잠숫느니 **찬** 것이며  
 두둑히 다 입히고 겨울이라 얽은 옷을  
**숨치마** 좋다시더니 **보공(補空)\*** 되고 말어라 <제12수>

**안방에** 불 비치면 하마 님이 계시은 듯  
 닫힌 창 바빠 열고 몇 번이나 울었던고  
**산속에 추위** 이르니 님을 어이하올고 <제16수>

설워라 설워라 해도 아들도 만 몸이라  
**무덤 풀** 옥은\* **오늘** 이 살 붙어 있단 말가  
 빈말로 설운 양함을 뒤나 믿지 마옵소 <제40수>

- 정인보, 「자모사」

\*밤송인 쪽으렁: 우리 속담에 '쪽으렁밤송이 삼 년 간다'는 말이 있음. 병이 많은 사람이 그대로 목숨을 이어 가는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임.  
 \*바릿밥: 여자의 밥그릇에 담긴 밥으로, 어머니 몫의 더운밥을 뜻함.  
 \*보공: 관 속에 시신을 눕힌 다음 관의 빈 곳을 채우는 물건.  
 \*옥은: 우거진.

1.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자신의 외양보다는 행동이 입에게 사랑받은 계기라고 믿고 있었다.
- ② 화자는 자신을 반기는 입의 태도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 ③ 화자는 자신을 대하는 입의 표정이 달라지자 직접적으로 입을 원망하고 있다.
- ④ 입이 화자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된 상황을 화자는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⑤ 입이 화자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타인의 조언으로 해소되고 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지향하는 곳으로서, ㉡과 궁극적으로 동일시되는 공간이다.
- ② ㉢은 화자가 ㉠의 입을 못 봐서 생기게 된 근심으로 인해 가게 된 공간이다.
- ③ ㉣은 화자가 ㉢을 경유하여 간 곳으로서, ㉡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공간이다.
- ④ ㉡은 입이 ㉢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으로서, 화자를 향한 입의 사랑이 충만한 공간이다.
- ⑤ ㉢은 입이 ㉣을 통해 화자를 만나기 위해 오는 곳으로서, 화자가 입과 재회를 이루는 공간이다.

3.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옷 품’이 줄어들 것은 ‘살뜰히’ 길러 주신 어머니의 정성 덕분에 화자 자신이 육체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겠군.
- ② ‘바릿밥’은 남에게 주시는 대신 본인은 ‘찬 것’을 잡수시는 어머니의 행적으로부터 자애롭고 희생적인 모성애를 찾아볼 수 있군.
- ③ 어머니가 살아생전 좋아하시던 ‘숨치마’를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보공’으로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해 화자는 회한을 느끼고 있군.
- ④ ‘안방에 불’은 화자에게 어머니가 살아 계신 듯한 착각을 잠시 일으키며 ‘산속에 추위’는 어머니가 무덤에 계신다는 현실을 떠오르게 하고 있군.
- ⑤ 어머니의 ‘무덤 풀’이 우거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살아 있음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어머니의 희생에 감사하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일반적인 인식의 차원에서 시간은 일정한 속도로 흐르며 모든 존재가 한번 바뀐 것은 다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므로, 순간성에 따라 순행하는 직선적 개념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문학 작품 속에서의 시간은 순행하는 직선적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은 물론 인위적으로 재구조화되어 어떤 주기에 따라 반복적인 성격을 가진 순환적 개념으로 파악되기도 하고, 같은 시간도 상황에 따라 더욱 빠르게 혹은 더욱 더디게 인식되기도 한다. 이렇게 시간을 인식하는 것은 시간의 순행성과 순간성을 초월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 ① (가)의 ‘춘한고열’과 ‘츄일동턴’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반응을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입을 향한 화자의 근심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군.
- ② (가)의 ‘죽조반’, ‘조석 피’는 ‘기나긴 밤의 잠’과 연결되어 하루라는 주기에 따라 반복되는 입의 일상적 삶을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③ (가)의 ‘잠간’ 동안의 ‘푹잠’으로 이루어진 입과 만나는 시간은 ‘오던된 계성’으로 인해 순간에 그쳤으므로 화자에게 실제보다 더 빠르게 흐르는 것으로 인식되었겠군.
- ④ (나)의 ‘가을은 그 가을’은 한 해를 주기로 하여 같은 계절이 다시 돌아온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을 순환적 개념으로 파악한 것이겠군.
- ⑤ (나)의 ‘하루도 열두 시’는 하루라는 일정한 시간을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반복적으로 겪는 자식의 배고픔과 병증이 한 순간에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5~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도연명(陶淵明) 죽은 후에 또 연명(淵明)이 나단 말이  
 밤마을 옛 일홈이 마초아 갯틀시고  
 도로와 수출전원(守拙田園)\*이야 귀오 내오 다르랴  
<제1곡>

공명(功名)도 잊었노라 부귀(富貴)도 잊었노라  
 세상 번우한 일 다 주어 잊었노라  
 내 몸을 내마저 잊으니 남이 아니 잊으랴  
<제2곡>

㉠질가마 조히 췌고 바위 아래 시 물 길어  
 팔죽 달게 쭈고 저리짐치 ㅍ어내니\*  
 세상에 이 두 맛이야 남이 알까 흐노라  
<제5곡>  
 어와 저 백구(白鷗)야 무슨 수고 하노고냐

갈대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굳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찌리 <제6곡>

추강(秋江) 밝은 달에 일엽주(一葉舟) 혼자 저어  
남대를 떨쳐 드니 자는 백구(白鷗) 다 놀란다  
어디서 ㉠일성어적(一聲漁笛)은 조차 흥(興)을 돋나니 <제9곡>

황하수(黃河水) 뭍다더니 성인(聖人)이 나시도다  
초야(草野) 군현(群賢)이 다 이러나단 말가  
어즈버 강산 풍월을 놀을 주고 가거니 <제14곡>

최 행수(崔行首) 쑥달임하세 조 동갑(趙同甲) 꽃달임하세  
닭짹 게짹 울며 점심 내 아무조록 담당함세  
매일에 이렇굴면 무슨 시름 있으랴 <제17곡>

- 김광옥, 「울리유곡」

\*수졸전원: 전원에서 웅졸하게 살아감.  
\*저리잡치 끄어내니: 절인 김치를 끄집어내니.

(나)

올라가 볼 만한 산천의 경지는 반드시 모두 궁벽하고 거리가 먼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자(王者)의 도성이나 대중이 모인 도회지에도 본래 ㉡좋은 산천이 없는 것이 아니다. 명성을 노리는 사람은 조정에, 이익을 노리는 사람은 시장에 묻혀, 비록 형(衡)·여(廬)·호(湖)·상(湘)이 굽어보고 쳐다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널려 있어 장차 우연히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슴만 쫓느라 산을 보지 못하고, 돈만 움키느라 사람을 보지 못하고, 아주 작은 것은 살피면서도 수레의 짐은 보지 못하니, 이는 마음에 쏠리는 일이 있어 눈이 다른 데를 볼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일을 좋아하는 세력 있는 사람들은 관(關)을 넘고 진(津)을 건너 터를 잡고는 ㉢산수놀이에 몰두하면서 스스로 고매(高邁)한 체하지만, **강락(康樂)이 길을 내자 주민들이 놀랐고, 허사(許汜)가 집터를 묻자 호사(豪士)들이 꺼렸으니**, 그러지 않는 것이 도리어 고매하다.

서울 남쪽에 너비가 1백 묘(畝)쯤 되는 못이 있는데, 살림하는 여염집들이 빙 둘러 있어 즐비하고, 이거나 지고 타거나 걸어 그 옆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앞뒤에 연락부절한다. 어찌 뛰어나게 그윽하고 흰칠하게 넓은 지역이 이 안에 있을 줄 알랴? 후(後) 지원(至元) 정축년 여름 연꽃이 만발했을 때 현복군(玄福君) 권렴(權廉)이 보고는 사랑하여 바로 못 동쪽에 땅을 사서 **두각**을 세웠다. 높이는 두 길이나 되고, 연장(延長)은 세 발[丈]이나 되는데, 주추가 없이 기둥을 마련하였음은 썩지 않도록 한 것이요, 기와를 덮지 않고 띠로 이었음은 새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 서까래는 다듬지 않았지만 굽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으며, 벽토는 단청(丹青)하지 않았지만 화려하지도 않고 누추하지도 않아 대략 이러한데, ㉣은 못의

연꽃을 모두 차지하고 있다.

이에 그의 아버지 길창 공(吉昌公)과 형제·인아(姻婭)들을 초청하여 그 위에서 술을 마시며 화평하고 유쾌하게 놀아 하루해가 지는데도 돌아갈 줄 몰랐는데, 대자(大字)를 잘 쓰는 아들이 있으므로 ‘운금(雲錦)’ 두 자를 쓰도록 하여 누각 이름으로 걸었었다.

나는 한번 가 보니 향기로운 붉은 꽃과 푸른 잎의 그림자가 가없이 펼쳐져 이슬을 머금고 바람에 흔들리며, 연기 낀 파도에 일렁이어 소문이 헛되지 않다고 할 만했다. 어찌 그것 뿐이라? 푸르른 용산(龍山)의 여러 봉우리가 처마 앞에 몰렸는데 밝은 아침 어두운 저녁이면 매양 형상이 달라지며, 건너편 여염집들의 집자리 모양을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있으며, 지거나 이고 타거나 걸어 왕래하는 사람들 중의 달려가는 사람, 쉬는 사람, 돌아다보는 사람, 손짓해 부르는 사람과 친구를 만나자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 존장(尊長)을 만나자 달려가 절하는 사람들이 또한 모두 모습을 감출 수 없어 바라보노라면 즐겁기 그지없다. 저쪽에서는 한갓 못이 있는 것만 보이고 누각이 있음은 알지 못하니, 또한 어찌 누각에 있는 사람을 알겠는가? 진실로 올라가 구경할 만한 경치가 반드시 궁벽하고 거리가 먼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조정이나 시장에 마음 쏠리고 눈이 팔려 우연히 만나면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한 것이며, 또한 하늘이 만들고 땅이 숨겨 경솔히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권렴은 허리에 만호후(萬戶侯)의 병부(兵符)를 차고 외척(外戚)의 권세를 누리면서, 나이는 아직 옛날 강사(強仕)하던 나이가 채 못 되니, 부귀와 이록(利祿)에 빠져도 취하기 십상인데도 능히 **인자(仁者)와 지자(智者)들이 좋아하던 바**를 좋아하며, 주민들에게 놀라움을 주지도 않고 호사(豪士)들에게 꺼림을 받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뛰어나게 그윽하고 흰칠하게 넓은 지역을 시장이나 조정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찾아내어 소유해서 어버이를 즐겁게 하고 손님에게까지 미치며, 자신을 즐겁게 하고 남에게까지 미치니, 이야말로 가상하다. 익재 거사(益齋居士) 아무는 기한다.

- 이제현, 「운금루기」

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 지명과 인물을 언급하며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부정적 현실을 언급하며 대상에 대한 연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역사적인 사건을 서술하며 지나간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긍정적인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며 이상을 지향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운명을 바라보는 시각을 서술하며 과거와 대조되는 현재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6.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울리’는 작가가 소유한 논밭이 있던 한양 인근의 지역으로, 작가는 인목 대비 폐모론으로 삭탈 관직된 후 인조반정으로 다시 관직에 나갈 때까지 8년 동안 이곳에서 은거하며 「울리유곡」을 창작하였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이나 부정을 드러내는 대신 혼탁한 정치 현실에서 귀거래하는 소회와 은거 생활의 흥취와 단상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당쟁을 배경으로 창작된 작품들이 속세의 정치 현실에 대한 긴장감이나 시름, 연군의 정 등을 노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 ① <제2곡>에서 화자는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있어버렸다고 말하며 혼탁한 정치현실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소회를 나타내고 있다.
- ② <제5곡>에서 화자는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과 그 음식 맛에 만족하며 자신의 은거 생활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은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제6곡>에서 화자는 고기를 엿보는 백구와 자신이 다르다는 점을 통해 자신이 속세의 정치현실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제9곡>에서 화자는 홀로 배를 띄우고 낚시를 즐기면서 바라보는 가을 강의 풍경을 제시하며 은거 생활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제17곡>에서 화자는 지인들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정서를 언급하며 정치 현실에 대한 긴장감과 거리가 먼 일상생활의 단상을 제시하고 있다.

7. (나)의 [두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민들이나 호사들의 꺼림을 받지 않기 위해 권력의 가족에게만 방문이 허락되어 있다.
- ② 그 주위를 여염집들이 둘러싸고 있어 그곳을 왕래하는 이 중에서 누각의 뛰어난과 그윽함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다.
- ③ 아침과 저녁마다 용산의 봉우리와 달리 연못에서 볼 수 있는 꽃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풍경의 다채로움을 느낄 수 있다.
- ④ 주추 없이 기둥을 세우고, 기와 대신 띠를 이은 다음 벽토는 단청을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누추함보다 화려함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 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건너편에 위치한 여염집들의 모습과 길가를 지나는 백성들의 생활을 한눈에 살펴보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소박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일상을 보여 주는 사물이다.
- ② ㉡: 자연물을 바라보며 느낀 화자의 흥을 고조하는 소리이다.
- ③ ㉢: 사고를 전환하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다고 글쓴이가 생각하는 장소이다.
- ④ ㉣: 아름다움 대신 편안한 것만을 찾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다.
- ⑤ ㉣: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는 서울 안의 아름다운 경치이다.

9.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가), (나)와 같이 조상들은 작품을 창작할 때 중국의 고사(故事)나 지명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고사나 지명에 대한 배경 지식을 지니고 있다면 고전 문학 작품을 보다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수졸전원: ‘어리석음을 지켜 전원으로 돌아옴.’이라는 뜻으로, 중국의 시인 도연명의 「귀전원거(歸田園居)」라는 작품의 한 구절임. 도연명은 이 작품에서 관직을 사양하고 전원으로 돌아가는 즐거운 심정과 전원생활의 정취를 노래하였음.

㉡ 황하수 뭍다더니 성인이 나시도다: 중국 삼국 시대의 인물인 이강은 흙탕물인 황하는 천 년에 한 번씩 맑아지는데, 그때에는 상서로움에 반응하여 성인이 출현한다고 말함. 한편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바라는 상황을 가리킬 때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린다.’라고도 함.

㉢ 형·여·호·상: 중국의 형산과 여산, 동정호와 소상강을 일컫는 말로, 이 네 곳은 중국 내에서도 절경으로 손꼽히는 곳임.

㉣ 강락이 길을 ~ 호사들이 꺼렸으니: 강락은 중국 송나라의 인물로, 경치가 좋은 곳을 보러 가기 위해 길을 닦으니 백성들이 놀라 도적이라 하였다고 함. 허사는 중국 삼국 시대의 인물로, 호사(豪士: 호방한 사람)들이 자신의 뛰어난을 알지 못하고 박대한다고 비난하자 유비는 허사가 나라에 충성할 마음 없이 농토나 구하고 집터를 묻고 다니기 때문이라며 그를 비난하였음.

㉤ 인자와 지자들이 좋아하던 바: 중국 노나라의 공자는 자신이 지은 『논어』 <옹야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라고 말하였음.

- ① (가)의 화자는 ㉠을 활용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 이름을 근거로 자신의 귀거래 이후의 삶이 도연명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를 활용하여 자신이 강산과 풍월이 있는 전원을 떠나야 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의 글쓴이는 ㉢를 활용하여 가까운 곳에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있어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당시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④ (나)의 글쓴이는 ㉣를 활용하여 강락과 허사와 같이 스스로 고매한 척하는 삶의 태도를 지니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 ⑤ (나)의 글쓴이는 ㉤를 활용하여 속세의 욕망을 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권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저쟁 죽이]라는 자가 서울의 번화하고 부유한 곳에서 생장하였으나 정신이 한가롭고 마음이 고요하여 물건을 사고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과 가산의 유무(有無)가 무슨 일인지 묻지 않으며, 장기와 바둑, 오만함과 방탕함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오직 문을 닫고 책만 읽을 뿐이었다.  
 젊은 시절에 일찍이 나에게 글을 배웠는데 중간에 병으로 공부를 중지하였고, 또 황제와 기백의 의술을 익혀서 다소 그의 취미를 알았는데, 알고 지내던 유력자에게 만류당하여 고습과 도검\*의 사이에 종사한 지가 10여 년이 되어 절충장군의 품계를 얻었으나 장차 노쇠한 나이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는 개연히 한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는 글을 배웠으나 이루지 못했고, 의술을 배웠으나 통달하지 못했고, 군문에서 일하였으나 또한 공을 세우고 업적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이가 빠지고 머리가 세었으며 지기(志氣)가 저하되어 당세에 썩먹을 수가 없으니, 차라리 넓고 조용하고 적막한 물가에 스스로 물러나서 한가롭고 편안하게 소요하면서 제 몸을 마쳐야 할 것입니다. 가평의 조종현 비림산 아래에 살 곳을 정하니, 이곳에는 큰 냇가에 큰 바위가 솟아 있는데, 두 뿔이 우뚝 솟아 꿈틀꿈틀하여 마치 물을 마시는 용 모양과 같으므로 용암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저는 그 위에 한 칸의 정자를 짓고 마음대로 구경하며 회포를 부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미 문장을 잘하지도 못하고 무예를 잘하지도 못하여 한 사람의 곤궁한 늙은이일 뿐이니 이곳이 훌륭한 인물을

만나 명승지로 일컬어지게 할 수가 없으며, 이곳 또한 궁벽한 산중의 황폐한 곳일 뿐 깨끗하고 수려하며 빼어난 구경거리가 없어서 시인과 일사(逸士)들이 놀고 감상할 장소가 될 수 없으니, 진실로 시부(詩賦)에 읊조리고 문장에 나타내어 후세에 전할 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자를 군자라 하고, 땅은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남이 빼앗으려고 다투지 않는 곳을 고요하고 한가롭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진실로 이 땅을 얻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이 땅도 저를 만난 것을 꼭 불행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니, ㉠공은 저를 위하여 용암정 기문을 지어 주시겠습니까?”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러고말고. 내 그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옛날 내가 병조 판서를 맡았을 때에 그대도 편비가 되었는데, 그때 그대와 같이 있던 무리들 중에는 재주 있고 민첩하여 일을 맡길 만하다고 이름나 그대보다 우위에 있는 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그 사람들의 소행을 평소 살펴보면 혹은 파리 머리만 한 작은 이익을 사모하여 죽을 곳으로 달려가 형벌을 받고 질곡에 빠진 자가 있으며, 혹은 분수에 맞지 않는 복을 바라고 무망한 사람\*을 본받아서 끝내 몸을 죽이고야 마는 형벌을 당한 자도 있다. 그런데 오직 그대만은 홀로 물욕 밖에 초연하여, 살아가는 일을 한 바위 위에 맡겨서 비록 오랫동안 곤궁하고 굶주려도 마음에 달게 여기고 후회함이 없으니, ㉡지난날 재주 있고 민첩하여 일을 맡길 만하다고 이름났던 자들에게 비한다면 그 득실이 어떠한가?”

내 들으니 용이라는 물건은 본래 숨고 감추는 것을 덕으로 여겨서 혹은 깊은 못 속에 칩거하고 혹은 더러운 진흙 속에 서려 있으며, 또 혹은 변하여 복이 되고 사람의 손톱 속으로 들어오기도 하는 바\*, 이는 모두 자취를 감추어 그 몸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라 한다. ㉢지금 그대가 이 정자에 처하기를 깊은 못에 처하고 진흙 속에 처하듯 하고 복 같고 손톱같이 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이 정자에 올라 바라볼 때에 산천이 두 손을 마주 모아 읊하는 듯한 형세와 마주치게 되며 아지랑이와 구름이 변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보지 못하였으니 말할 만한 것이 없고, ㉣비록 말한다 하더라도 또 어찌 그대에게 보탬이 되겠는가.”

서쟁이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하므로 마침내 이것을 써서 용암정 기문으로 삼는 바이다.

- 남구만, 「용암정기」

\*고습과 도검: 고습은 군복의 아랫도리를, 도검은 두 종류의 병서를 이르는 말로, 병법에 조예가 깊음을 뜻함.

\*무망한 사람: 무망은 의외(意外)와 같은 말로, 바라서는 안 될 것을 바라는 사람을 이룸.

\*용이라는 물건은 ~ 하는 바: 선율사라는 사람이 손톱을 치니 흑룡한 마리가 손톱 속에서 나와 날아갔다는 고사를 빌려 옴.

(나)

꽃들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비꽃은 결코 진달래를 부러워하지 않고, 진달래는 결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한껏 꽃피우다가 떠날 시간이 되면 아무 말 없이 떠나갑니다. 만일 제비꽃이 진달래를 부러워하고 진달래가 장미를 부러워한다면 꽃들의 세계에서 인간들과 똑같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꽃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하지 않습니다. 네가 예쁘다 내가 예쁘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그대로 감사하며 열심히 살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어떤 꽃을 보고 '예쁘다, 예쁘지 않다'고 평가하는 이들은 꽃들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이 인간의 잣대로 자기중심적인 평가를 한 것일 뿐입니다. 벌레들을 보고 해충이니 익충이니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꽃들은 그런 이기적인 평가를 내리는 인간들 앞에서도 그저 스스로 아름다울 뿐입니다. 스스로 아름다움으로써 인간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해 줍니다.

만일 ㉔제비꽃이 제비꽃답게 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땅에 진정한 봄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비꽃이 제비꽃답게 피어남으로써 세상을 진정한 봄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중략)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으로써 진정한 나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것입니다. 제비꽃이 제비꽃이든 되듯이 나 또한 이대로 나 자신이 됩니다. 아무리 남의 장점이 돋보여도 남의 장점을 통해 나의 단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어리석습니다. 오히려 그 단점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남의 장점을 통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단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장점이라고 생각한 그 장점이 경우에 따라서는 단점일 수 있습니다. 남의 장점을 나의 장점으로 가져오기에는 나의 어떤 형편이나 환경이 그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되고,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면 됩니다.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꽃은 없듯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인생이든 인생의 무게와 가치는 똑같습니다.

- 정호승,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됩니다」

10.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인으로 잘 알려진 서생 숙의 삶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 ② 서생 숙의 서화와 용암정에 보관되어 있는 다양한 기물을 소개하고 있다.
- ③ 건축물의 신축 과정을 제시한 후, 각 단계에서 벌어진 관련 일화를 다루고 있다.
- ④ 용암정에 가 보지 않은 글쓴이가 해당 건축물을 지은 서생 숙의 인물됨을 밝히고 있다.
- ⑤ 서생 숙과 용암정을 관찰한 후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고 객관적 기록만을 정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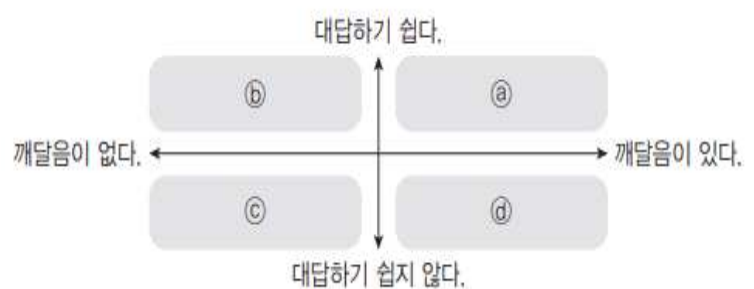
11. &lt;보기&gt;의 밑줄 친 선생님의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lt;보 기&gt;

선생님: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잘 모르는 내용을 알고 싶을 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란 새로운 정보를 요청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질문한 후 스스로 그 답을 정리해 주거나, 쉽게 답할 수 있는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강조하여 상대방이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한편 질문의 종류를 청자가 대답하기 쉬운 질문인지 아닌지, 청자에게 깨달음이 있는 질문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의 네 가지 종류]



그렇다면, 위의 ㉑~㉔은 각각 어떠한 성격을 지닌 질문인지 말해 볼까요?

- ① ㉑과 ㉔은 질문을 한 후,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㉔에 해당합니다.
- ② ㉑과 ㉔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점에서 ㉔에 해당합니다.
- ③ ㉑과 ㉔은 잘 모르는 내용을 알고 싶어 던진 질문으로 상대방이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새로운 깨달음이 없다는 점

에서 ㉞에 해당합니다.

- ④ ㉜과 ㉞은 상대방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별다른 깨달음이 없다는 점에서 ㉜에 해당합니다.
- ⑤ ㉟, ㉡, ㉢은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정리해 주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상대방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에 해당합니다.

12. [A]와 같은 관점에서 서생 죽에게 해 줄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장점이 있으므로 문장을 잘하거나 무예를 잘하는 사람을 굳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 ② 당신의 가치를 낮추어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러운 조화 속에서 당신의 아름다움도 빛날 것입니다.
- ③ 당신이 고요하고 한가롭게 지내기로 이미 결심했다면, 자신의 선택을 믿고 더욱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 ④ 당신은 곤궁하고 굶주려도 욕심 없이 살아왔으므로 재주 있고 민첩해서 이름을 날렸던 자들보다 오히려 낫다 할 것입니다.
- ⑤ 당신이 머리가 세고 지기가 저하되었다 한탄하지만,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가진 단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생소한 개념이나 복잡한 주제를 설명할 때, 친숙한 개념이나 단순한 주제와 하나씩 비교하여 설명하는 전개 방식을 '유추'라고 한다. 예를 들면 'A에는 a, b, c, d와 같은 속성이 있고 B에는 a, b, c와 같은 속성이 있을 때, B에 d와 같은 속성도 있을 것이다.'와 같이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때 개연성이 확보되려면 두 대상의 유사성과 관련성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두 대상을 비교하여 떠올린 유사성이 적절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또한 두 비교 대상을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하게 대응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유추를 활용할 때에는 논리적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가)와 (나)에도 다음과 같이 두 대상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유추가 활용되고 있다.

(A) 글쓴이가 보기에 친숙한 개념이나 단순한 주제	(B) 글쓴이가 설명하려는 생소한 개념이나 복잡한 주제
(가) 용	(가) 서생
(나) 꽃들	(나) 인간들

- ① (가)가 '은거'라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두 대상을 비교하고 있다면, (나)는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두 대상을 비교하고 있군.
- ② (가)에서 '용'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 속성은 '서생'이 앞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덕성과 연결이 되어, 글쓴이가 '서생'의 가치를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군.
- ③ (가)에서 '용'이 변하여 북이 되고 손톱 속에서 지내는 것과 '서생'이 자취를 감추어 몸을 온전히 하는 상황을 유추로 연결하는 과정에는 결함이 나타나고 있군.
- ④ (나)의 '꽃들'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품성은, 글쓴이에게 수렴되어 '인간들'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여러 가지 품성으로 연결되고 있군.
- ⑤ (나)의 글쓴이가 말하는 '꽃들'에 대한 평가 역시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두 대상의 모든 측면을 동일하게 대응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군.

[14~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들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

㉢그들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나무가 그들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들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 문태준, 「산수유나무의 농사」

(나)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밖으로 쓸어 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어니젠가 새끼 거미 끌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끌어 문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짝기도 전이다

어데서 좁쌀알만 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또 문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 백석, 「수라(修羅)\*」

\* 수라: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 고통이 지속되는 세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다)

해가 다 저문 어느 날, 오막살이 토굴에 사는 노승 앞에 더벅머리 학생이 하나 찾아왔다. ㉡아버지가 써준 편지를 꺼내면서 그는 사뭇 불안한 표정이었다.

사연인즉, 이 망나니를 학교에서고 집에서고 더 이상 손댈 수 없으니, 스님이 알아서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물론 노승과 그의 아버지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편지를 보고 난 노승은 아무런 말도 없이 몸소 후원에 나가 늦은 저녁을 지어 왔다. 저녁을 먹인 뒤 발을 씻으라고 대야에 가득 더운물을 떠다 주었다. 이때 더벅머리의 눈에서는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까부터 훈계가 있으리라 은근히 기다려지기까지 했지만 스님은 한마디 말도 없이 시중만을 들어주는 데에 크게 감동한 것이다. 훈계라면 진저리가 났을 것이다. 그에게는 백천 마디 좋은 말보다는 다사로운 손길이 그리웠던 것이다.

이제는 가고 안 계신 한 노사(老師)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내게는 생생하게 살아 있는 노사의 모습이다.

산에서 살아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겨울철이면 나무들이 많이 꺾인다.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 않던 아름드리나무들이, 곳곳하게 고집스럽기만 하던 그 소나무들이 눈이 내려 덮이면 꺾이게 된다. 가지 끝에 사뻐사뻐 내려 쌓이는 그 가볍고 하얀 눈에 꺾이고 마

[A] 는 것이다.

깊은 밤,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나무들이 꺾이는 메아리가 울려 올 때, 우리들은 잠을 이룰 수 없다. 정정한 나무들이 부드러운 것 앞에서 넘어지는 그 의미 때문일까. 산은 한겨울이 지나면 앓고 난 얼굴처럼 수척하다.

사뻐터의 온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던 살인귀 앙굴리말라를 귀의시킨 것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神通력이 아니었다. 위엄도 권위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자비였다. 아무리 흉악무도한 살인귀라 할지라도 차별 없는 훈훈한 사랑 앞에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바닷가의 조약돌을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든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이다.

- 법정, 「설해목」

1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다)는 모두 의인화된 자연물을 통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화자를 표면에 드러내지 않고 대상에 대한 정서를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축약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비극성을 느끼게 하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 (나)는 (다)와 달리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장면을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다)는 (가), (나)와 달리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삽화 형식으로 제시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15. (가)의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늘'은 산수유꽃의 속성을 닮은 것으로 일상적 소재를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통념과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 ② ㉡: '마음의 그늘'은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과 대비되는 것으로 농부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③ ㉢: 꽃을 피우고 그 아래 그늘을 드리우는 '그늘 농사'는 산수유나무가 그늘을 만드는 과정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 ④ ㉣: 땅에서 넓어지는 '그늘'은 넉넉함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무가 짓는 농사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⑤ ㉤: '노란 좁쌀 다섯 되'는 산수유나무가 농사지은 그늘이 땅에 드리운 정도를 중량감을 활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수라」는 방바닥에 내려오는 거미들을 반복적으로 쓸어 버리는 동안 나타나는 화자의 대상에 대한 인식 변화 과정, 내적 갈등과 정서의 심화 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시인은 외적 요인으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이산의 고통을 겪는 거미들의 상황을 수라에 비유함으로써 일제 강점하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고 공동체 회복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1연에서의 '거미 새끼'를 2연의 '큰 거미'와 헤어진 존재로 여기는 것을 볼 때, '방바닥'은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군.
- ② 2연에서 화자가 '짜릿한다'와 같은 감정을 느낀 것을 1연의 '아무 생각 없이'와 비교할 때, 대상이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2연에서 '큰 거미'를 버리며 서러움을 느끼는 것을 볼 때,



거미들의 모습을 통해 이산의 고통을 겪는 우리 민족의 모습이 형상화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3연에서 ‘줍쌀알만 한’ 거미를 쫓아 버리며 다른 거미들을 만나기를 기원하는 것은, 해체된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정서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3연에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화자의 손길을 회피하는 모습은, 수라와 같은 비극적 상황에 처한 당대 민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군.

17. [A]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천년 바람 사이로  
고요히  
폭설이 내릴 때  
내가 폭설을 너무 힘껏 껴안아  
내 팔이 뚝뚝 부러졌을 뿐  
부러져도 그대로 아름다울 뿐  
아직  
단 한 번도 폭설에게  
상처받은 적 없다

- 정호승, 「설해묵」

- ① [A]는 <보기>와 달리 자연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나무’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
- ② <보기>는 [A]와 달리 ‘눈’으로 인한 상처를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 ③ [A]는 ‘나무’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기>는 ‘나무’의 변함없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A]는 ‘눈’이 ‘나무’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보기>는 ‘나무’가 ‘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
- ⑤ [A]와 <보기>는 모두 특정한 계절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다.

18.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대상을 무시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는 대상에 대해 변민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 ② ㉠은 대상을 배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는 대상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 ③ ㉠은 대상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는 대상의 태도에 공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 ④ ㉠은 대상을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는 대상의 지난 행동을 용서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 ⑤ ㉠은 대상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는 대상을 혼욕하지 못한 자책의 마음을 담고 있다.

[19~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철’에게 어느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둔감하고 좀 모자란 형과 그런 형을 외면하며 살아가던 동생은 6·25 전쟁에 국군으로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혀 북쪽으로 끌려가던 길에 만나게 된다.

이튿날 저녁도 그 이튿날 저녁도 형은 꼭꼭 그 경비병에게서 ㉠밥 한 덩이를 얻어 넣었다.

그 사람은 얼굴이 검고 두 눈이 디룩디룩한 게 꽤 익살꾸러기이면서도 한편으로 성미 급한 우악한 데가 있었다. 걸핏하면 너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너의 집인 줄 아느냐, 이러면서 형을 후려치는 것이었지만 ㉡형이 엉엉 울면 너털너털 웃으며 재미있어했다.

이러다가도 저녁이면, / “야, 낮에 때린 값이다…… 네 어머니 노릇을 좀 해야겠다.”

꼭 밥 한 덩이를 더 얻어 주곤 했다.

형은 그것을 점퍼 포켓에 넣어 두었다가, 밤이 깊어서 모두 잠들었을 무렵에야, 동생과 반씩 갈라 먹곤 했다.

거의 매일 밤 이랬다.

차츰 동생도 밤이 어지간하면 형이 얻은 밥 덩이를 은근히 기다리게끔 되었다.

이렇게 밥을 못 얻은 저녁엔, ㉢형은 또 흑흑 흐느껴 우는 것이었다. 울면서 동생에게, 넌 내가 혼자만 먹은 줄 알구 화가 나서 뽀로통해 있나, 이렇게 못 얻을 때두 있지, 매일 저녁이야 어떻게 얻니, 사람의 일이 한도가 있는 법이지…… 이렇게 넘두리했다. 동생은 역시 대답이 없었다. ㉣형은 더 흐느껴 울었다.

그러나 이튿날 저녁이면, 형은 더욱 신명이 나서 밥 한 덩이를 전부 동생 앞에 내밀었다.

“자, 너 다 먹어.” / 동생이 반을 가르려 들면, ㉤형은 또 벌컥 성을 내며,

“난, 때때루 아침에두 얻어먹잖니? 아침에는 어쩔 수 없이 혼자 먹능 거다. 널 안 줄래 안 주는 게 아니구……

다른 새끼덜 눈이 있어 봐서…… 이렇게 밤까지 기대릴람 하루 종일 주머니다 넣어 뒀야 되겠으니, 손으로 주물럭거리서 손때가 다 옅어 오르구…… 또 사실 건딜 수가 있니? 목이 닳아서, 히히히…….”

동생도 형의 고집을 아는 터라 혼자서 다 먹곤 했다.

㉥형은 벌쭉벌쭉 웃으며, 동생 손에 있는 밥 덩이를 만져보면서,

“좀 퍼뜩퍼뜩 먹으려무나, 오무작오무작거리지 말구. 어떠니? 오늘 저녁 건 쌀알이 좀 많니? 좀 괜찮은 것 같니?”

이러면서 침을 꿀꺽 삼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엔 이렇게 동생이 한 덩이를 다 먹어 치웠을 때 형은 갑자기 또 울음이 터졌다.

“……?” / 동생은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다.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마구 꼬집어 뜯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는 사이에 동생은 이런 형 앞에 지난날 스스로가 간직하고 있었던 오연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이 남부끄럽다거나 창피하다거나 그렇지 않은 것은 물론, 좀 어처구니없었으나 이런 형인 까닭으로 해서 도리어 마음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꼈다. 혜죽하게 두 팔을 들어 올리는 싱거운 뒷모습이 오히려 어울리는 형의 모습이긴 하다! 생각하며, 이런 꼬락서니로 형과 만나진 데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이런 형일수록 오히려 형다운 것이, 어처구니없는 즐거움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종래의 모든 것을 철저히 단념해 버리고 잃어버린 지금 마음 밑바닥에 철저한 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자신하면서도 이런 형의 그 마음 가락에 휩쓸려 들어가는 스스로를 의식하며 벽차게 서러워 오고 지난날의 형에 대한 스스로가 후회되며, 더불어 엉뚱한 향수 같은 것이 즐거움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지금 이런 형에게서 의지 논리로써 얻어진 신념 같은 것이 멀리 미치지 못할 어떤 위엄 같은 것조차 느껴지는 것이었다.

- 이호철, 「나상」

#### (나)

**[앞부분의 줄거리]** 트럭에 상자를 옮기는 일을 하는 창고지기 자양은 꼼꼼하고 성실하지만, 동료인 기임은 일을 대충 처리한다. 기임은 트럭 운전수의 딸인 다림과 사귀며 술에 취해 들어오고, 자양은 기임에게 잔소리를 하면서도 북어 해장국을 끓여 준다. 창고지기 생활에 싫증이 난 기임은 상자 하나를 일부러 잘못 실어 보내 놓고 자양에게 이야기한다. 자양은 상자 주인에게 편지를 써서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고, 기임은 다림을 따라 창고를 떠나려고 한다.

(창고 밖으로 상자들을 옮기고 있던 자양과 트럭 운전수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다. 자양은 트럭 운전수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도록 간청하고 운전수는 목청을 높여 가며 거절의 이유를 설명한다.)

운전수: 그건 미친 짓이야!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자양: (편지를 운전수에게 내밀며) **제발 보내야 해요!**

운전수: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깐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실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 실제로 내가 아는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 반장 딸기코하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실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 반장 외눈깔**, 그 둘뿐이라구.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 하듯이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

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의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 번 볼 수조차 없어.

자양: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편지를 억지로 운전수 손에 쥐어 준다.) 상자를 실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 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운전수: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깔에게 주면, 외눈깔은 그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다음 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운반되는 상자들을 따라가 맨 나중에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지?

자양: 네, 바로 그겁니다.

운전수: 그게 또 큰 착각이라구. 부속품이 든 상자들은 말야, 중간중간에서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눠지거든.

자양: 부속품 상자들은 결국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운전수: 물론, 모아지는 곳도 있겠지. 상자들이 한 군데에서 나와 여러 군데로 흩어지느냐, 여러 군데에서 나와 한 군데로 모아지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다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

자양: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 줘야죠.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 (중략)

기임: 미안해! 그런데 **막상 떠나려니까 조금은 서운하군.** (창고 안을 둘러보며) 너하고 여기서 얼마나 살았더라…… 몇 십 년은 훨씬 더 될 거야, 아마…….

자양: 그래……. 우린 철부지 시절부터 이 창고지기였어.

기임: 언제나 너는 나를 고맙게도 보살펴 줬지.

자양: 날 의붓어미라고 미워했으면서 뭘…….

기임: 진짜로 미워한 건 아니잖아?

자양: 나도 알아. (기임을 껴안는다.) **제발 가지 말아! 이 창고도, 나도,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

기임: 그건 안 돼. 이 창고는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아냐.

운전수: 남자들끼리 헤어지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창고 밖으로 나가며) 시간 없어! 나 먼저 트럭에 가서 있을 테니까 너희는 어서 짐 싸 들고 나와!

다림: (뚝뚝 국자로 소리 나게 두드리며) 그만하고, 서로 자기 물건들이나 골라 봐요.

기임: (자양의 포옹을 풀며) 나 내 물건을 잘 모르겠어. 굼벵이, 내가 골라 줘.

자양: 아냐, 쓸 만한 게 있거든 모두 내가 가져.

기임: 너는 이 창고 속에서 혼자 살 텐데…….

자양: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먼저 골라 봐.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침대 밑의 상자들 중에서 화려한 색깔의 **⑥스웨터**를 찾아낸다.) 너의 생일날 주려고 두었던 건데, 헤어지는

날 선물이 됐군.

기임: (자양에게서 스웨터를 받아 몸에 대본다.) 근사한데!

다령: (자양의 침대 밑을 바라보며) 좋은 건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걸 가져가도 돼요?

기임: 안 돼, 그건 손대지 마. / 자양: 가져가요.

다령: (자양의 침대 밑에서 상자 하나를 꺼낸다.) 이걸 뭐죠?

자양: 북어 대가리죠. 그걸 가져가세요. 꼭 필요할 겁니다.

다령: 북어 대가리……?

기임: 이게 왜 필요한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상자를 열어 북어 대가리를 하나 꺼내 자양에게 준다.) 난 너한테 이것 밖에 줄 게 없군.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구.

자양: (북어 대가리를 받으며) 그래, 언제나 내 곁에 두고 볼게.

(창고 밖에서 트럭의 재촉하는 경음기가 울린다. 미스 다령은 서둘러서 물건들을 담요에 담는다.)

다령: 아버지가 재촉해요. (상자와 담요를 들며) 어서 들고 나가요.

기임: (트렁크를 들고, 자양에게) 그럼 잘 있어.

자양: (마지못해 대답한다.) 잘 가…… 가서 행복해.

(기임과 미스 다령, 창고 밖으로 나간다. 자양은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놓고, 떠나는 기임을 바라본다. 창고 문 앞에서 자양과 기임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기임: (소리) 이 창고 앞의 상자들은 어쩔 거야? 내가 좀 창고 안에 옮겨 주고 갈까?

자양: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창고 밖으로 떠나는 것이 즐겁다는 기임의 환호성이 들린다. 트럭 운전수와 다령의 웃음소리도 들린다. 잠시 후, 트럭이 경음기를 울리며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창고는 조용해진다. 자양, 식탁 앞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늙고 허약해진 모습이다. 그는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북어 대가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자양: 그래,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두 손으로 북어 대가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 바라보며) 말해 보렴, 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오랜 나날……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상자들을 옮겨 오고…… 내보내며……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뿌듯한……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왔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 있는 거지? (사이) 북어 대가리야, 왜 말이 없냐? 멀뚱 멀뚱 바라만 볼 뿐 왜 대답이 없어?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아냐, 내 의심은 틀린 거야. 덜렁 남은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됐다고 판단해선 안 돼. (핸들 카에 실

린 상자를 서류와 대조하며 혼자서 쌓기 시작한다.)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정확하게 쌓아! 틀리면 안 돼! 단 하나의 착오도 없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자양, 느릿느릿 정성을 다해 상자들을 쌓는다. 무대 조명, 서서히 자양에게 압축되면서 암전한다.)

- 막 -

- 이강백, 「북어 대가리」

19.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와 달리 (가)에는 부정적 시대 상황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나타나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에는 두 공간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사건이 교차되어 나타나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에는 과거의 태도를 성찰하며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인물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에는 인물 간의 대립으로 인해 고조되던 갈등의 해소가 나타나 있다.
- ⑤ (가)와 달리 (나)에는 특정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과장된 반응이 해학적으로 나타나 있다.

20. ㉠~㉣의 이유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경비병이 행사한 폭력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 ② ㉡: 밥 덩이를 얻어먹지 못한 배고픔을 참지 못해
- ③ ㉢: 반응이 없는 동생의 태도에 대한 서운함을 느껴서
- ④ ㉣: 동생이 자신의 말을 따라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해
- ⑤ ㉤: 얻어 온 밥 덩이를 동생에게 먹일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21. (가), (나)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경비병은 성격이 드세면서도 나름의 인정을 베풀 줄 알았다.
- ② (가)의 동생은 형이 밤마다 몰래 주는 밥 덩이를 기대하고 기다렸다.
- ③ (나)의 자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들을 다 주고 싶어 했다.
- ④ (나)의 다령은 좋은 것을 다 차지하고 싶어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지녔다.
- ⑤ (나)의 기임은 자양이 자신을 의붓어미처럼 괴롭히면서 미워했다고 생각했다.

22.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시발점이고, ㉡는 희망찬 미래를 암시하는 복선이다.
- ② ㉠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고, ㉡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실마리이다.
- ③ ㉠은 상대방에게 위안을 주는 수단이고, ㉡는 상대방을 체념하게 하는 상징물이다.
- ④ ㉠은 관계를 개선하게 하는 매개체이고, ㉡는 관계의 변화를 확인하게 하는 소재이다.
- ⑤ ㉠은 시간적 배경을 알려 주는 지표이고, ㉡는 계절적 배경이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기준이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북어 대가리」는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세상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자각 없이,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상실한 채 기계의 부품처럼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어떠한 삶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 삶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희곡이다.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세상일이 자기 생각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면서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는 모습을 통해 소외된 현대인의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자양이 ‘편지를’ ‘제발 보내야 해요!’라고 하면서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 줘야죠.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라고 말하며 걱정하는 것으로 보아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라는 운전수의 말과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정확하게 쌓아! 틀리면 안 돼! 단 하나의 착오도 없게.’라는 자양의 말을 통해 기계의 부품처럼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운전수가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 하듯이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라고 하면서 ‘분배 반장’을 ‘딸기코’로, ‘접수 반장’을 ‘외눈깔’로 부르는 것을 통해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막상 떠나려니까 조금은 서운하군.’이라고 하면서 창고를 떠나려는 기임에게 ‘제발 가지 말아! 이 창고도, 나도,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라고 말하며 말리는 것으로 보아 세상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자각하지 못했던 자양이 세상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자각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⑤ 자양이 ‘머리만…… 덜렁…… 남은’ ‘북어 대가리를’ 보며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 있는 거지?’라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는 무기력한 현대인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24~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의 줄거리]** 남궁에서 생활하던 궁녀 열 명 중 운영과 자란을 비롯한 궁녀 다섯 명이 안평 대군의 명으로 서궁으로 옮긴다. 이로 인해 운영은 김 진사에게 편지를 전할 길이 없어지고, 자란은 빨래를 빌미로 궁 밖으로 소풍을 가는 행사 때, 무녀를 만나 김 진사에게 편지를 전하는 피를 낸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남궁의 궁녀들은 장소 문제로 서궁 궁녀들과 다투고, 자란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홀로 남궁을 찾는다.

“사실은 서궁 사람들 다섯 중에 소격서동으로 가자는 것은 나 혼자뿐이란다.”

“그래, 그건 또 무슨 까닭이냐?”

“내가 들어 보니 소격서동은 바로 옛날 옥황상제께 제사를 드리던 곳으로 달리는 삼청동이라고도 부른다. 아마도 우리 열 명은 저 하늘에 있다는 삼청궁에서 선녀로 살다가 실수로 옥황상제께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귀양 왔을 것이다.

속세에 쫓겨 온 이상 인간 세상 어디서 살든 상관은 없는 것이지만 깊고 깊은 궁궐 속에 마치 새장 속의 새처럼 갇히게 되었으니, 나는 피꼬리 울음만 들어도 탄식하고 푸른 버들을 두고도 한숨을 짓고 쌍쌍이 나는 제비, 마주 앉아 즐고 있는 산비둘기만 보아도 외로워진다. ㉠들의 풀에도 함환초가 있고 나무 중에도 연리지가 있다. 무지한 초목과 지극히 미천한 새들도 음양이 있어 즐거움을 나누는데, 우리는 무슨 죄가 그렇게도 커서 적막한 궁궐 속에 숨어 꽃 피는 봄과 달 뜨는 가을에 등불만 베풀면서 혼을 사르고 청춘을 썩혀야 한단 말이냐? 인생이란 한번 늙고 나면 다시는 젊어지지 않는 것이니, 생각만 해도 슬픔이 가슴을 비집고 흘러내린다. 이제 일 년에 한번뿐인 이런 좋은 때를 맞아 맑은 시내에 가 몸을 깨끗이하고 옥황상제를 모신 태을사에 들어가 머리가 땅에 닿도록 백 번이라도 절을 하고 손을 모아 빌고 빌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다음 세상에서는 이런 고생을 면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니? 그런 뜻으로 내가 소격서동을 고집한 것이지 여기에 어찌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겠니? 우리 열 명은 자매처럼 정을 나누며 지내 왔는데 이런 일로 서로 의심해서야 쓰겠니? 내가 까닭 없이 고집을 피우는 것은 아니란다.”

시비를 걸려던 소옥은 오히려 자란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다.

“내가 이치에 밝지 못해 네 생각에 못 미쳤구나. 내가 서궁

사람들의 생각에 찬성하지 않은 것은 그 근처에는 무뢰한들이 많다는 소문이 있어서 혹시나 욕을 당할까 봐 걱정해서 그런 것이란다. 이제 네 고귀한 뜻을 알았으니, 이후로는 비록 ㉠밝은 대낮에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뜻을 따를 것이며 강이나 바다에 들어간다고 해도 너를 따르리라.”

“무릇 일은 마음이 정해져야 되는데, 지난번 말할 때 마음을 정하지 못하여 두 사람이 밤새도록 논쟁을 벌이고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은 순리에 따르지 못한 것이요, 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군께 알리지않고 첩들끼리 몰래 모의한 것은 충(忠)에 어긋나는 것이며, 낮 동안 다투던 일을 밤이 채 반도 지나기 전에 바꾼 것은 신의를 잃는 것이다. 게다가 가을에는 옥같이 맑은 물이 없는 곳이 없거늘 제단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소격서동을 그렇게 고집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구나. 또 비해당 앞은 물이 맑고 돌도 깨끗해 작년에도 거기서 빨래를 했는데 왜 새삼스레 다른 곳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가더라도 나는 따르지 않겠다.”

부용이 두 사람에게 불만을 보이며 하는 말이었지요. 보련 또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다들 사리가 분명하고 똑똑한 궁녀들이었으니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문신하는 바늘과 같은 것이다. 조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화도 생기고 복도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예로부터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말이라고 했다. 내가 옆에서 너희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자란의 말에는 무엇인가 숨겨진 것이 있고 소옥의 말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마지못해 따르는 것이고 부용의 말은 말을 꾸미는 데만 힘을 쓰고 있으니 어느 것도 내 뜻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이번 행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옆에 금련이 있다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의논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구나. 내가 점을 쳐서 하늘의 뜻을 알아보지. 서로 화해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금련은 말끝을 흐리며 주역을 펴 놓고 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한 쾌를 얻어 쾌 풀이를 하였지요.

“내일 운영은 반드시 남자를 만날 것이다. 운영은 얼굴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가 있어 대군께서 오랫동안 운영에게 마음을 기울였으나, 운영이 대군의 부인을 생각하여 죽음으로 거역하고 있고, 대군 또한 자칫 운영의 몸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감히 가까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운영이 쓸쓸한 곳을 버리고 화려한 곳으로 가려 하니 장안의 활달한 소년 선비들이 그 미모를 보고는 넋을 잃고 미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요, 비록 ㉡가까이하지는 못하더라도 손가락질을 하고 눈짓을 보낼 것이니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요, 대군을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전에 대군께서 명령하시기를 궁녀가 문을 나가거나 바깥사람이 궁녀의 이름을 알면 죽을 것이라고 했으니, 나 또한 이런 행차에는 따라갈 수가 없다.”

자란은 일이 그르친 것을 알고 상심하여 어두운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요. 그런데 비경이 울면서 허리를 안고

억지로 붙잡아 앉혔지요. 그리고는 앵무 술잔에 술을 따라 자꾸 권하였지요. 다른 궁녀들도 다들 술잔을 잡았지요. 서로 다투기는 했어도 가슴 저편에 숨은 슬픔이 서로를 전염시켰던 것이겠지요.

- 작자 미상, 「운영전」

(나)

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이모님의 병문안을 가기로 했다. 한 번쯤은 가 보는 게 도리일 터였다. 어머니가 합리적이고 강단 있는 분이라 적잖은 의지가 되었다. 어머니는 길도 복잡하니 택시를 타자고 했다.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 시이모님이 어디가 아프신지 묻자 취장암이라는 간단한 대답이 돌아왔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전이는 안 되었는지 물으려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그만두었다. 택시에서 내려 병원 입구를 향해 걸어가갈 때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우리 언닌,” / 어머니는 잠시 움찔하더니 말을 바꾸었다.

“그러니까 네 시이모님은, 아주 괴팍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정한 편도 아니다. 누구한테 민폐 끼치는 걸 싫어하고 차라리 자기가 손해를 보고 마는 성격이지.”

나는 그런 점은 자매가 아주 닮았다고 생각했다.

“난 좀 일찍 결혼한 편인데 결혼하고 나서는 친정에 자주 왕래하지 않았다. 친정이 싫었으니까.”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나를 보았다. 이해하겠느냐 묻는 듯도 하고, 너도 그런 건 아니냐 살피는 듯도 했다.

“우리 언닌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엄마를 모시고 살았다. 그 집에 경철이 녀석이, 그러니 까 네 시외삼촌 말이다, 개가 가끔 들락거렸는데, 개가 돈 사고 치면, 그래, 이제 너한테 못 할 말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 언니가 몇 번 물어주고 그랬지. 그러다가…….”

우리는 어느새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다.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 서너 명이 우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어머니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야 다시 얘기를 이어 나갔다.

“그게 재작년 가을인가 그런데, 언니가 갑자기 편지 한 장만 써 놓고 사라졌다. 자기를 절대 찾지 마라, 당분간 모든 관계를 끊고 살겠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살아 보고 싶다, 마음이 변하면 돌아오겠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참 내용도 놀라웠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냐? 너는 글을 쓰니 알겠지. 그걸 뭐라고 그러냐?”

나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다.

“글에 담긴 기운이라고 해야 하나? 글자도 아니고, 글씨체도 아니고.”

“문체요?”

“문체? 그런 걸 문체라고 하나? 나는 모르겠다. 우리 언니도 옛날엔 글쟁이가 되고 싶어 했지. 널 보면 반가워할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언니 편지를 읽는데, ㉢문체인지 뭔지에 깃들여 있는 마음이나 기분 같은게 으스스하게 느껴지는데, 못된 말을 쓴 것도 아니고 다 평범한 말뿐이었는데, 이상하게 무섭고 서럽더라. 난 그게 뭔지 궁금하다. 도대체 그게…….”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는 시이모님의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다.

나는 이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태우에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만 있었다. 이러다 영영 못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모 스스로도 그 겨울밤에 대해 몇 번이나 되풀이해 얘기했고, 얘기를 할 때마다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느냐고 물었고, 나도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하곤 했다. 어쩌면 기억이란 매번 말과 시간을 통과할 때마다 살금살금 움직이고 자리를 바꾸도록 구성되어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몹시 쇠약해져 한 번에 몇 마디씩 밖에 하지 못했다. 그때 그녀가 한 말들은 또 이전에 한 말들과도 조금 달랐다.

“나도 애초에, 이렇게 생겨 먹지는, 았았겠지. 불가촉천민처럼, 아무에게도, 가당지 못하게. 내 탓도 아니고, 세상 탓도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성가시고 귀찮다고, 누굴 죽이지 않은 게, 어디냐? 그냥 줌, 지진거야. 손바닥이라, 금세 아물었지. 그게 나를, 살게 한 거고.”

그녀는 내게 입술에 물을 축여 달라는 손짓을 했고 나는 거즈에 보리차를 묻혀 그녀의 입에 대 주었다.

“여긴, 책도 없는데, 목이 마르구나.”

그녀는 어린 강아지처럼 눈을 감은 채 물을 빨았다.

“그런데 그게 뭘까…… 나를 살게 한…… 그 고약한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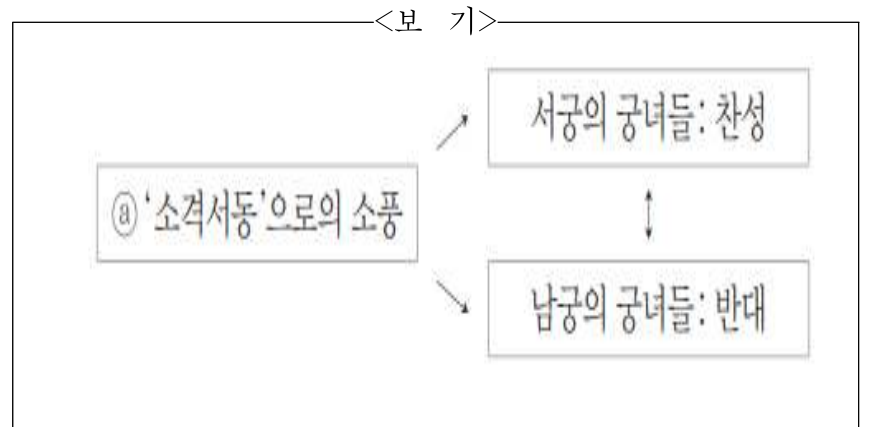
그때 이모의 얼굴은, 예전에 시어머니가 그녀의 편지 얘기를 하면서 그 문체에서 느꼈던 무섭고 서러운 감정이 뭘까, 골똘히 생각하던 표정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이내 잠인지 혼수인지 모를 상태에 빠졌고 시어머니가 병상을 지키던 다음 날 새벽에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아파트 보증금과 통장에 남은 현금은 그녀가 유언장에 써 놓은 대로 상속되었다. 원래는 가장 우선순위인 시외할머니에게 모두 상속되어야 했지만, 그녀는 시외할머니에게 1/3, 시어머니에게 1/3, 그리고 태우와 내게 1/3을 상속한다고 지정해 놓았다. 시외할머니는 우리가 합의하여 만딸의 유산 전부를 외아들 빚을 갚는 데 쓰기를 바랐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히 거절하고 우리가 그토록 사양하는데도 우리 부부의 통장에 이모의 유산을 입금했다.

통장에 입금된 숫자를 보고 나는 몹시 마음이 아팠다. ㉡한 달에 35만 원씩만 쓰던 그녀가 9년 5개월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오래 들여다보고 있자니 그 여덟 자리 숫자는 그녀와 세상 사이를, 세상과 나 사이를, 마침내는 이 모든 슬픔과 그리움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나 사이를 가르고 있는, 아득하고 불가촉한 거리처럼도 여겨졌다.

- 권여선, 「이모」

24. (가)에 나타난 갈등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란은 전생에 옥황상제에게 지은 죄를 씻기 위해 ㉠을 제안했다고 말하고 있다.
- ② 소옥은 ‘소격서동’ 근처에서 곤욕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 때문에 ㉠을 반대했었다.
- ③ 부용은 대군에 대한 ‘충(忠)’과 다른 공녀들 간의 ‘신의’를 들어 ㉠을 반대하고 있다.
- ④ 보련은 다른 공녀들의 ‘말’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을 반대하고 있다.
- ⑤ 금련은 운영이 주역의 점괘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을 우려하여 ㉠을 반대하고 있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의 처지와 대비되는 사물들을 나열하여 인물의 외로운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 ② ㉡: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하려는 일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인물들의 예상되는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행차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④ ㉣: 더 심한 행동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정의로운 것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 ⑤ ㉤: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인물의 삶이 검소하고 절제된 것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26. ㉠의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족의 부재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함
- ② 자신을 보호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
- ③ 관계에서 비롯된 실망감과 홀로서기에 대한 두려움
- ④ 자신이 살고 싶은 삶에 대한 결단과 그로 인한 불안감
- ⑤ 이전의 삶과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결연함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여성 문학에 등장하는 여성 중 상당수는 사회적 약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개별적 존재로서의 욕망을 억압당한 채 사회가 규정한 삶의 방식에 순응할 것을 강요당한다. 그들이 당하는 억압은 뿌리 깊은 남성 중심주의에 기반하여 제도나 법적으로 강제되는 제도적인 차원의 차별이나, 법적으로 강제되진 않지만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강요되는 관습적 차원의 차별에서 비롯된다. 여성 문학 속 여성들은 이런 모순된 사회 현실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주체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이에 저항하여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는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 ① (가)와 (나)에는 사회 구조의 모순을 인식하고, 이에 저항하여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진취적인 여성상이 나타난다.
- ② (가)와 (나)에는 개별적 존재로서 여성의 삶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삶에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나타난다.
- ③ (가)에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나)에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거부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난다.
- ④ (가)에는 불합리한 사회 제도로 인해 개인의 욕망을 억압받는 여성이 등장하고, (나)에는 관습적 차원에서 남성 중심주의로 차별받는 여성이 등장한다.
- ⑤ (가)에는 자신의 삶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여성의 모습이 등장하고, (나)에는 제도적으로 규정된 여성의 삶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여성의 모습이 등장한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의 서술상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가)는 소풍 장소 문제로 인한 궁녀들의 갈등이 주요 사건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그 사건의 서술자는 장면 속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궁녀들과 동료 관계에 있는 운영으로 설정되어 있고, (나)는 시이모님의 기구한 삶이 주요 사건으로 제시되어 있고, 시이모님을 만나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나'가 서술자로 설정되어 있다.

- ① (가)와 (나)의 서술자는 모두 작품 속 인물로,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가)와 (나)의 서술자는 모두 작품 속 인물은 아니지만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 ③ (가)의 서술자는 사건 해석에 주관관을 강하게 개입시키고 있

지만, (나)의 서술자는 사건에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다.

- ④ (가)의 서술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지만, (나)의 서술자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 ⑤ (가)의 서술자는 제한적인 시선을 통해 사건을 바라보고 서술하고 있지만, (나)의 서술자는 전지적인 시선을 통해 사건을 바라보고 서술하고 있다.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주관화의 장르인 서정시에서는 대개 자아의 상황과 정서를 중심으로 사물이나 사건 등 외부의 세계를 해석하고 수용한 결과를 노래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이때 ㉠자아는 외부의 세계를 자신의 상황이나 정서와 동일시하거나, 반대로 서로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배치하게 된다. 그중에서 후자를 일러 주객 대비 구도라 한다면, 이러한 구도를 가진 작품들은 인간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해 준다. 우리의 문학사에서 이를 가장 먼저 보여 주는 작품은 유리왕이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황조가」이다.

[A]	피꼬리는 오락가락	翩翩黃鳥
	암수 서로 정다운데	雌雄相依
	외로운 이내 몸은	念我之獨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誰其與歸

불특정 다수의 입으로 전해지는 소박한 민요에 연원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짧은 시구에서 확인되는 것은, 정답게 어울려 노는 피꼬리 한 쌍과 외로운 이내 몸의 선명한 대비이다. 충족되고 조화로운 외부의 세계와 무엇인가가 결핍된 화자 자신의 대비인 셈이다. 이와 같은 발상은 모든 서정시의 시원이 라 할 수 있는 민요에서도 두루 발견되며, 민요의 흔적을 강하게 지닌 고려 속요에서도 종종 보인다. 가령 「만전춘별사」의 2연은 다음과 같다.

[B]	뒤척뒤척 외로운 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오
	서창을 열어 보니 도화(桃花)가 피었도다
	도화는 시름없어 봄바람에 웃는도다 봄바람에 웃는도다

이 작품에서도 침상에 홀로 누워 있는 자아와 봄바람에 웃고 있는 도화의 대비가 선명하다. 시인 또는 시적 자아는 이 도화와 무관하게 결핍을 느끼고 있었겠지만, 충족된 외부 세계와의 대비를 통해 그 결핍을 더욱 강렬하게 감지하였을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독자 또한 한층 강렬한 인상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주객 대비의 구도는 시조나 근대 이후의 서정시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서사 작품에서 인물의 말을 통해 그의 정서를 드러낼 때도 흔하게 발견된다. 「심청가」에서 심

봉사는 아내가 심청을 낳고 며칠 후에 병을 얻어 죽게 되자 다음과 같이 부르짖는다.

[C] 아이고, **마누라!** 마오, 죽지 마오. 평생의 정한 뜻을 **사생동거(死生同居)** 보았더니 **염라국**이 어디라고 날 버리고 가라시오? …(중략)… **해도** 졌다 다시 **돋고** **꽃**도 졌다 다시 **피고** 하늘이 장천구만리로되 삼경이 되면 **이슬** 오고 **북경**이 머다 **해도** **사신** **행차가** **왕래**헌디 마누라는 한번 가면 다시 오지 못허는디 **구차히** 사자거늘 누굴 믿고 살어나며 **동지(冬至)** **대한(大寒)** **긴긴밤**을 **젖** **먹고자** **우는** **자식** **뉘** **젖** **맥여** **길러** **낼까?**

여기에서 이미 죽은 아내는 해, 꽃, 이슬 등의 자연물과 대비된다. 이러한 대비는 조화를 이룬 세계와 결핍을 느끼는 인물 간의 대비로 나아가며, 심 봉사의 입장에서 아내와의 사별이라는 상황은 더없이 고독한 삶의 조건으로 각인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대신에 자신을 비추어 줄 거울을 대면하면 자기 자신을 더욱 선명히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의 한계인 동시에 삶의 이치이다. 이때 자신의 처지와 대비되는 외부의 풍경이나 사건은 이러한 인간에게 자신의 반면(反面)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특히 인간의 유한성이나 불완전성이 자연의 무한성이나 완전성과 병렬되면서 대비될 때, 인간은 자연스럽게 비극적 존재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문학에서의 주객 대비 구도는 인간이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을 보는 시력이 남을 보는 시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의 문학적 구현으로 볼 수 있다.

2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정시에서 외부 세계와 자아는 동일시될 수도 있고 대비될 수도 있다.
- ② 화자와 외부 세계가 동일시되는 작품은 정서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 ③ 서사 갈래에서도 주객 대비 구도에 기반하여 인물의 정서를 드러낼 수 있다.
- ④ 자아의 결핍감은 주객 대비 구도를 바탕으로 하여 표현할 때 한층 강한 인상을 자아낸다.
- ⑤ 주객 대비 구도는 남을 아는 것보다 자신을 아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삶의 이치임을 보여 준다.

30. [A]와 [B]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대화적 어조를 취하고 있다.
- ② 시간의 변화에 따른 분위기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다.
- ④ 화자가 추구하는 윤리적 이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청각적 심상을 통해 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환기하고 있다.

31. 윗글의 맥락에서 [C]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아내의 죽음이 다시 돌아오는 ‘해’, ‘꽃’, ‘이슬’, ‘사신’과 대비됨으로써 심 봉사의 결핍감을 더욱 증폭시켜 드러내는군.
- ② 아내가 죽어서 가는 ‘염라국’과 ‘사신 행차가 왕래’하는 ‘북경’의 동일시는 심 봉사의 심리적 단절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군.
- ③ 심 봉사의 입장에서 아내의 죽음과 맞바꾼 ‘젖 먹고자 우는 자식’은 무한한 생명 순환의 이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무한한 자연물과 유한한 인생의 대비는 ‘구차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심 봉사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위로하는 방편이 되는군.
- ⑤ ‘해’, ‘꽃’, ‘이슬’이라는 자연물과의 대비로 인해 ‘사생동거’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내를 책망하는 정서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군.

32. <보기>를 ㉠의 한 사례라고 할 때, 윗글을 바탕으로 이를 [A]~[C]와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귀뚜리 저 귀뚜리 어여쁘다 저 귀뚜리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이 슬픈 소리  
 저 혼자 울어 내어 사창(紗窓) 여원잠을 살뜰히도 깨우나니  
 두어라 네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無人) 동방(洞房)에  
 내 뜻 알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 ① [A]의 ‘피꼬리’가 화자의 상황과 대비되는 것과 달리, <보기>의 ‘귀뚜리’는 화자의 ‘뜻’을 알고 이에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군.
- ② [A]에서는 ‘피꼬리’에 대한 화자의 시선이 단일한 데 비해, <보기>에서는 ‘두어라’를 기점으로 하여 ‘귀뚜리’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전환되고 있군.
- ③ [B]의 ‘도화’와 <보기>의 ‘귀뚜리’는 모두 조화로운 세계를 표상하는 소재로서 화자의 결핍된 정서나 상황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군.
- ④ [C]의 ‘동지 대한 긴긴밤’과 <보기>의 ‘지는 달 새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인물이나 화자의 결핍감과 유기적으로 조응하고 있군.
- ⑤ [C]에서 ‘마누라’와 사별한 상황과 <보기>에서 화자가 ‘무인 동방’에 놓여 있는 상황은 모두 삶의 유한성이나 불완전성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하겠군.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상의 형상화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사를 살펴보면 세속화라는 한 가지 흐름이 감지된다. 조선 시대로 국한해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영웅이나 재자가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들이 대부분이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소설에서는 물론이고 다양한 갈래의 작품에서 세속적인 욕망, 통속적인 인간됨, 방탕한 허무주의 등을 특성으로 하는 인물들이 형상화된다. 이러한 현상을 확실하게 보여 주는 사례로는 기인(奇人)이나 이인(異人), 거지, 광대 등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기울였던 연암 박지원의 다음 글을 들 수 있다.

어떤 이가 본래 김홍연의 행적을 잘 알아 나에게 얘기해 줬는데, 그에 의하면 김은 곧 왈짜였다. 왈짜란 대개 여항의 허랑방탕하고 물정 모르는 자를 일컫는 말로서 이른바 검객(劍客)이나 협객(俠客)과 같은 부류를 말한다. 그는 젊은 시절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여 무과에 합격했으며, 힘이 세어 범을 때려잡거나 좌우 옆구리에 기생 둘을 끼고 몇 길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였지만, 쩌쩌하게 벼슬자리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이 본래 부유하여 돈을 물 쓰듯 하였고, 고급의 유명한 서첩(書帖)과 좋은 그림, 칼이며 거문고며 골동품, 기이한 꽃과 풀 따위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 혹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천금(千金)을 아끼지 않았으며, 준마(駿馬)와 송골매를 늘 좌우에 두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늙어 머리가 세었으며, 자루에다 끌과 정을 넣고 다니며 명산에 두루 노니는데, 이미 한라산에 한 번 올랐고 백두산에 두 번 오른바 그때마다 손수 바위에 자기 이름을 새긴다고 한다. 이로써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자기가 있었음을 알리려고 한다는 거였다.

‘발승암기(髮僧菴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글에서는 김홍연이라는 실존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글 전체의 대의는 이름의 덧없음에 있다 하겠지만, 인용한 대목은 당대 실존했던 ‘왈짜’의 한 전형을 보여 준다. 연암의 눈에는 돈은 물론 인생을 낭비하는 한 인물의 생애가 안쓰러웠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시가에서는 범속(凡俗)한 성격의 인물이나 화자가 나오는 작품이 다수 발견된다.

입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마에  
손을 짚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산 바라보니 거뭇희끗 서  
있거늘 저야 입이로다 버선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  
에 쥐고 곰비임비 임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  
른 데 가리지 말고 워령충창 건너가서 정(情)옛말 하려  
하고 결눈으로 흘깃 보니 작년 칠월 열사흔날 값아 벗긴  
주추리 삼대 살뜰히도 날 속여거다

모쪼록 밤이기 망정 행여 낮이런들 남 웃길 뻔하과라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둘만 여겨 두고 또 두고 먹고  
놀 줄 모르는고  
먹고 놀 줄 모르거던 죽을 줄 알라마는 석숭(石崇)이  
[C] 죽어 갈 적 누거만재(累巨萬財) 가져가며 유령(劉伶)의  
무덤 위에 어느 술이 이르렀더니  
하물며 청춘 일장몽(一場夢)에 백화난만(百花爛漫)하니  
이같이 좋은 때에 아니 놀고 어이하리

[B]에는 입을 기다리는 조바심이 장황한 수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입에 대한 애정의 깊이를 은근하게 그려 냈던 전통과는 다르게 이 노래는 부박(浮薄)해 보이는 범속한 행위를 낱낱이 그려 냄으로써 상황적 정서를 극대화하고 있다. 더욱이 종장에서는 스스로 느끼는 부끄러움의 정서마저 희화화된 표현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인간상의 문학적 형상화는 조선 전기의 노래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양상이다. [C]에서는 중국 역사상 가장 이름난 거부(巨富)인 석숭과 전설적인 애주가인 유령, 이 두 인물을 근거로 하여 인생무상을 설파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시적 대상을 향한 비난의 어조가 은근하게 이어지는데, 그 대상이 ‘먹고 놀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어서 결국에는 화자 자신이 향락주의에 경도된 범속한 인간임을 드러내게 된다. 이 역시 조선 후기 문학에서 새롭게 출현한 문학적 경향의 일단이다.

이와 같은 범속한 인간형의 출현은 실존 인물이든 문학적으로 가공된 인물이든 모두 조선 후기의 사회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상업 및 유흥 문화의 발달, 화폐 경제의 활성화와 천박한 부자들의 대두, 애정과 같은 현실적 욕망에 대한 긍정, 개인적 삶의 가치에 대한 각성 등이 당대의 사회적 기류를 이루었던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문학 작품을 이러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비추어 읽는 것도 그 실상에 접근하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조선 후기 이전의 문학이 대체로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이상적 인간과 이상적 삶을 그려 내는 경향이 우세했다면,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 문학은 한편으로는 그 흐름을 이어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적 이념의 권위에 대해 의심이 섞인 질문을 던지면서 일상적 삶에 더욱 가까운 인간을 형상화하는 흐름을 보였던 것이다. 근대에 이르러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가치를 보여 주는 이런 인물들이 더욱 다양한 작품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흐름은 문학적 근대에 다가서는 한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3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선 후기 문학의 세속화는 문학 자체의 가치를 타락시켰다.
- ② 조선 후기에는 전기에 비해 문학에서 다루는 인간상이 다양해졌다.
- ③ 조선 후기의 시가 갈래는 여타 갈래에 속하는 작품의 세속화를 이끌었다.
- ④ 조선 후기 문학의 세속화는 가치관의 변화를 거부하는 퇴행적 반응의 산물이었다.
- ⑤ 조선 후기에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기 시작하였다.

34.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구별하여 그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생소하리라 판단되는 단어의 뜻을 풀이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인물의 특정한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행적들을 배열하고 있다.
- ④ 타인의 전언을 간접적으로 인용하여 한 인물의 인간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개별 사건 간의 인과 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삶의 궤적을 보여 주고 있다.

35. [B]와 [C]에 대한 비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B]와 [C]는 모두 반어적 목소리로 삶에 대한 위선적 태도를 풍자하고 있다.
- ② [B]와 [C]는 모두 병렬적 진술을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정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B]와 [C]는 모두 과장된 표현을 통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④ [B]에서는 상대방에게 간청하는 어조가, [C]에서는 상대방을 원망하는 어조가 나타나고 있다.
- ⑤ [B]는 여성 화자가 남성 청자에게, [C]는 남성 화자가 여성 청자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취하고 있다.

36. ㉠을 고려하여 [A]~[C]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김홍연이 자신의 취미를 위해 돈을 함부로 낭비하고 있는 것은, 당대 사회에 대두한 천박한 부자의 일면을 보여 준다 하겠군.
- ② [B]에서 임에 대한 애정을 노골적인 행위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 욕망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C]에서 놀 줄 모르는 사람들을 석송의 고사를 언급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화폐 경제의 활성화와 천박한 부자들의 대두를 배경으로 유흥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겠군.
- ④ [A]에서 김홍연이 바위에 이름을 새기는 것과 [B]에서 화자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개인적 삶의 가치를 옹호하려는 의도의 소산이겠군.
- ⑤ [A]에서 김홍연이 기생들과 어울리는 것과 [C]에서 화자가 유흥의 고사를 언급하며 먹고 노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당대 유흥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하겠군.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설시조에는 욕망 결핍 및 문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토로하거나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일련의 여성들이 있다. 이들 여성은 작품에 따라 직접 노래 행위의 주체로 등장하기도 하고, 타자의 발화 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여 주지만 모두 문제 상황을 체념으로 일관하거나 수용하는 대신, 자신의 불만 및 욕망을 적극 표출한다는 공통점을 보여 준다. 이러한 사설시조의 여성은 때로는 비극적 상황과 관련을 맺기도 하고, 때로는 희극적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면서 상반된 미학적 함의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남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성에게 의해 대상화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대상화할 때도 있는 등 다분히 주체적인 면모를 보여 준다. 그 과정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나 제도, 습속 등을 거부하고 철저히 비판하면서 그것에 대항하는 적극적 여성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작품들이 구사하는 비판과 저항의 방식은 준열한 꾸밈음이나 웅변적 저항이 아니라, 말장난·비유·재담·냉소·조롱 등인 경우가 많다. 이른바 웃음의 미학을 활용하는 것이다.

(나)

㉠한숨아 세한숨아 네 어느 틈으로 드러온다

고미장지\* 세살장지\* 가로단이 여단이에 암들찌귀 수들찌귀  
배목걸쇠 똑닥 박고 용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채웠는데 병풍  
(屏風)이라 덜걱 접은 죽자(簌子)이라 데데굴 만다 네 어느 틈  
으로 드러온다

어인지 너 온 날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 작자 미상

\*고미장지: 고미다락의 장지문. \*세살장지: 문살이 가는 장지문.

(다)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두루 삼아 감삼다가

가다가 한가운데 똑 끊어지었거늘 호치단순(皓齒丹脣)으로  
흠빨며\* 감빨아\* 섬섬옥수(纖纖玉手)로 두끝 마주 잡아 비부쳐  
\* 이으리라 저 모시를

우리도 사랑 끊어져 갈 제 모시같이 이으리라

- 작자 미상

\*흠빨며: 흠뻑 빨며. \*감빨아: 이로 잡아 빨아. \*비부쳐: 비벼서.

(라)

시어머님 며늘아기 나빠 부엌 바닥을 구르지 마오

빛에 받은 며느린가 값에 쳐 온 며느린가 밤나무 썩은 등  
걸에 휘초리\*나 같이 알살피신\* 시아버님 별똥 쇠똥같이 되중  
고신\* 시어머님 삼 년(三年) 곁은 망태에 새 송곳 부리같이  
뽕죽하신 시누이님 당피\* 간 밭에 돌피\* 난 것같이 셋노란 외  
꽃\* 같은 피똥 누는 아들 하나 두고

건\* 밭에 메꽃 같은 며느리를 어디를 나빠 하시는고

- 작자 미상

\*휘초리: 회초리. 가는 나뭇가지.  
\*알살피신: 양상곳은. 살이 빠져서 뼈만 남을 만큼 매우 바짝 마른.  
\*되중고신: 말라빠진. \*당피: 품질 좋은 곡식.  
\*돌피: 품질 낮은 곡식. \*외꽃: 오이꽃. \*건: 기름진.

(마)

㉡저 건너 흰옷 입은 사람 잔뚱고도\* 알미워라

작은 돌다리 건너 큰 돌다리 넘어 밥 뛰어\* 간다 가로\* 뛰어  
가는고 어허 내 서방(書房) 삼고라자

진실(眞實)로 내 서방 못 될진데 벗의 님이나 되고라자

- 작자 미상

\*잔뚱고도: 몹시 알밋고도. \*밥 뛰어: 바빠 뛰어.  
\*가로: (다리를) 가로질러.

37. (나)의 화자를 여성으로 볼 때, (가)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부각하고 있군.
- ②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군.
- ③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군.
- ④ 추상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여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군.
- ⑤ 행위를 나열하여 내적 갈등이 해소되기까지의 과정을 점층적으로 보여 주고 있군.

38.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이후에 열거되는 행위의 결과로서 대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에서 보여 준 대상에 대한 인식은 이후에 제시되는 화자의 바람을 낳고 있다.
- ③ ㉠과 ㉡은 모두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과 ㉡은 모두 역설적 상황을 제시하여 화자가 느끼는 심리적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영탄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39. (다)와 (라)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와 (라)는 모두 감각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② (다)와 (라)는 모두 중심인물인 여성과 여성의 주변 인물을 대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다)는 일련의 연속적 행위를, (라)는 다양한 인물들을 형상화함으로써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다)는 (라)와 달리 유추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소망하는 것에 대한 희망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라)는 (다)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40. (가)를 참고하여 (다), (마)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는 (마)와 달리 여성이 노래 행위의 주체로 등장해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군.
- ② (마)는 (다)와 달리 남성을 대상화하여 여성의 시선으로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군.
- ③ (다)와 (마)는 모두 여성 화자와 남성 간의 갈등 상황을 제시하여 남성 중심의 기존 질서가 지닌 모순을 비판하고 있군.
- ④ (다)는 이별이라는 비극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불만을 여성의 노동에 빗대어 희극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⑤ (마)는 현실에서는 문제 상황의 해결에 실패했지만 체념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적극적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군.

41. (가)를 바탕으로 (라)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알살피신’, ‘되종고신’, ‘뽕죽하신’처럼 부정적 어감을 지닌 표현을 사용해 상대에 대한 불만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빛에 받은 며느리’, ‘값에 쳐 온 며느리’라는 조롱의 표현을 통해 남성 중심의 질서에 순응하는 여성을 비판하고 있다.
- ③ 초라한 시댁 식구들과 기름진 밭의 ‘메꽃’ 같은 생기 넘치는 ‘며느리’를 대비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상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④ 시댁 식구들을 ‘쇠똥’, ‘망태’, ‘송곳 부리’ 같은 우스꽝스러운 사물에 비유함으로써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며느리를 어디를 나빠 하시느고’ 하고 ‘시어머님’에게 반문하는 것을 통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대한 당대의 통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멎은 즐고 /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짜룩짜룩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 낮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광재구, 「사평역에서」

(나)

조금 있으려니, 문이 열리며 역장이 바깥을 들고 나타난다. 바깥속엔 톱밥이 가득 들어 있다.

“추위에 고생하십니까요.”

농부가 얼른 인사를 차린다. 그에겐 제복을 입은 사람은 무조건 존경의 대상이 된다.

“필요. 그나저나 이거 죄송합니다. 기차가 자꾸 늦어지는군요.”

눈이 오니까 그렇겠지라우, 하고 너그러운 소리를 농부가 또 덧붙인다.

역장은 난로 뚜껑을 열고 안을 살펴본다. 생각보다 톱밥이 꽤 남았다. 바깥을 기울여 톱밥을 반쯤 쏟아놓은 다음 바깥을 다시 바닥에 내려놓는다. 역장은 돌아가지 않고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한다. 그도 역시 무료했으리라.

눈 얘기, 지난 농사와 물가에 관한 얘기, 얼마 전 새로 갈린 면장과 멀잖아 읍내에 생기게 된다는 종합 병원 이야기에 이르러 화제는 이어진다. 처음엔 역장과 농부가 주연이었지만 차츰 여자들도 끼어들게 된다. 그들 중 음울한 표정의 젊은 사내만이 끝내 입을 열지 않은 채로이다.

역장이 나타나는 바람에 자리가 더욱 좁아졌으므로, 중년 사내는 난로 가까이 놓아둔 자신의 작은 보통이를 한켠으로 치워 놓는다. 그 보통이엔 ㉡한 두름의 굴비, 그리고 낡고 때 묻은 내복 따위 같은 사내의 옷가지가 들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사내가 벽돌담 저쪽의 세상에서 가지고 나온 유일한 재산이다.

“선생은 향촌리에 사시우?”

늙은 역장이 결의 중년 사내에게 묻는다.

“아, 아닙니다.” / “그래요. 근데 무슨 일로…….”

“누굴 찾아왔다가 그만 못 만나고 가는 길입지요.”

“누굴 찾으시는데요. 어디 말씀해 보구려. 이 근처 삼십 리 안팎에 있는 동네라면 내가 열추 다 아니까요. 허허.”

“아, 아닙니다. 제가 주소를 잘못 알았었나 봅니다.”

오, 그래요. 역장은 사내가 뭔가 말하기를 꺼려 한다는 느낌

을 받았으므로 더 케묻지 않는다.

툽밥 난로의 열기가 점점 강하게 퍼져 오르고 있다. 역장은 난로의 뚜껑을 닫고 나서 한산도를 꺼내 사내와 농부에게 권한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

사내는 기차를 타기 전, 서울역 앞에서 그 굴비 한 두름을 샀었다. 언젠가 감방에서 허 씨가 흰 쌀밥에 잘 구운 굴비를 먹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비록 허 씨 자신은 먹을 수 없겠지만, 홀로산다는 허 씨의 칠순 노모에게 빈손으로 찾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역 광장의 행상꾼에게서 한 두름을 샀다. 그리고 밤 내내 완행열차를 타고 이날 새벽 사평역에서 내려 허 씨가 일러준 대로 그 조그마한 산골 마을을 찾아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허 씨의 노모는 이미 만날 수가 없었다. 죽어 묻힌 지가 오 년도 넘었다고 했다. 노모가 죽은 이듬해, 허 씨의 형도 식솔들을 데리고 훌훌 마을을 뒀고, 그 후 그들의 소식은 영영 끊어졌다는 거였다.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사내는 사지의 힘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듯한 허탈감을 맛보았다. 어느덧 초로에 접어든 허 씨의 쓸쓸한 모습이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노모의 죽음조차 모르고 비좁은 벽돌담 안에 갇힌 채 다만 다른 사람들의 것일 따름인 그 술한 계절들을 맞고 보내다가, 어느 날인가는 푸른 옷에 싸여 죽음을 맞이할 한 늙고 병든 무기수의 얼굴이 사내의 발길을 차마 돌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였다. 등 뒤에 두고 돌아서려니, 사내는 그 마을이 바로 자기의 고향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고향은 본디 이복이었지만 피난통에 가족들과 헤어져 집도 부모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커 왔던 것이었다.

(중략)

짧은 순간, 사람들은 모두 바깥의 어둠에 귀를 모은다. 분명히 기적 소리다. / 야아, 오는구나.

저마다 눈빛을 빛내며 그들은 서둘러 짐 꾸러미를 찾아 들고 플랫폼을 향해 종종걸음을 친다. 그러나 맨 앞장선 서울 여자가 유리문에 미쳐 다다르기도 전에 문이 드르륵 열리며 역장이 나타났다.

“그대로들 계십시오. 저건 특급 열참니다.”

그렇게 말하고 역장은 문을 다시 닫더니 플랫폼으로 바삐 사라진다.

참, 그리고 보니 저건 하행선이구나. 대합실 안의 사람들은 일시에 맥이 빠진다. 이번에도 특급이야? 똥똥이는 짜증스레 내뱉었고 아낙네들은 욕지거리를 섞어 가며 툄툄대었으며, 노인들은 더 심하게 기침을 콜록거렸고, 농부는 이번엔 늙은이의 가슴을 쓸어 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중년 사내와 청년도 말없이 난롯가로 되돌아갔고 맨 뒤로 몇 발짝 따라 나왔던 미친 여자는 주뻗주뻗 눈치를 살피며 도로 의자 위로 엉덩이를 주저앉힌다.

그사이, 열차는 쿵쿵거리며 플랫폼을 통과하고 있다. 차 내부의 불빛과 승객들의 미라 같은 형상들이 꿈속에서 보듯 현란한

흔적으로 반짝이다가 이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사위는 아까 처럼 다시금 고요해졌고, 창밖으로 철혹의 어둠이 잽싸게 제자리를 찾아 들어온다. 열차가 사라진 어둠 저편에서 늙은 역장의 손전등 불빛이 휘적휘적 걸어오고 있는 게 보인다. 그 모든 것이 아까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은 방금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열차의 불빛이 아직 자신의 망막에 남아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것은 어느 찰나에 피어올랐다가 소리 없이 스러져 버린 눈물겨운 아름다움 같은 거였다고 청년은 생각한다. 어디일까. 단풍잎 같은 차창들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마지막 가 닿는 곳은 어디쯤일까. 그런 뜻 없는 질문을 홀로 던지며 청년은 깊숙이 가라앉은 시선을 창밖 어둠을 향해 던지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다. 대합실 벽에 붙은 시계가 도착 시간을 한 시간 반이나 넘긴 채 꾸준히 재깍거리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다. 창밖엔 싸룩싸룩 송이눈이 쌓여 가고 유리창마다 흰 보랏빛 성애가 툽밥 난로의 불빛을 은은하게 되비추어 내고 있을 뿐.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말을 잊었다. 어찌면 그들은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년 사내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성냥불을 땡기려다 말고 멍하니 난로의 불빛을 들여다보고 있다. 노인을 안고 있는 농부도, 대학생도, 쭈그러 앉은 아낙네들도, 서울 여자도, 머플러를 쓴 춘심이도 저마다 손바닥들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망연한 시선을 난로 위에 모은 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만치 홀로 떨어져 앉아 있는 미친 여자도 지금은 석고상으로 고요히 정지해 있다. 이따금 노인의 기침 소리가 났고, 난로 속에서 툽밥이 툽툽 튀어 올랐다.

“흐유. 산다는 게 대체 뭣이간디…….”

불현듯 누군가 나직이 내뱉었다.

- 임철우, 「사평역」

4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삶의 암담함을 드러내는 소재이며, ㉡은 인물의 이기심을 부각하는 소재이다.
- ② ㉠은 가난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소재이며, ㉡은 도시민의 삶을 풍자하는 소재이다.
- ③ ㉠은 도시의 냉혹함을 강조하는 소재이며, ㉡은 사평역의 신비로움을 강조하는 소재이다.
- ④ ㉠은 계절의 변화를 상징하는 소재이며, ㉡은 가까운 이를 추모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⑤ ㉠은 귀향의 기분을 암시하는 소재이며, ㉡은 다른 이의 노모를 찾은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43.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사평역에서」는 화자가 막차를 기다리며 툽밥 난로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점차 그의 시선은 사람들의 내면으로 향하고 고단한 삶을 견디는 그들의 말없음을 헤아린다. 이 과정에서 한 줌의 툽밥을 던지는 행위는 추위에 대한 대응에서 삶에 대한 태도로 그 의미가 변화한다.

- ① ‘한 줌의 툽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는 툽밥 난로의 온기를 높여 추위를 견디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군.
- ②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는 화자가 헤아린, 말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군.
- ③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는 난로 주변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상징하는 소재로 볼 수 있군.
- ④ ‘눈꽃의 화음’은 난로 주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고향의 겨울 풍경을 상징하는 소재로 볼 수 있군.
- ⑤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는 난로 주변 사람들을 향한 화자의 연민을 상징하는군.

44. (나)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농부는 역장에게 건네는 말에서 그에 대한 호의를 드러낸다.
- ② 역장은 무료함을 이기기 위해 난로 곁에 모인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
- ③ 사내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역장에게 서운함을 느껴 그를 꺼린다.
- ④ 허 씨는 그의 가족들이 고향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 ⑤ 청년은 사라진 열차의 불빛에서 한순간 존재하다 사라지는 아름다움을 느낀다.

45. (나)는 (가)를 원작으로 창작된 작품이다. 다음을 (나)의 작가가 쓴 구상 노트라고 가정할 때, (나)에서 실현되지 않은 것은?

창작 방향	「사평역에서」라는 시에서 얻은 감동을 바탕으로 이 시를 한 편의 소설로 창작해야겠어. 원작의 특성을 살리되 소설의 장르적 성격에 맞춰 재구성해야겠군.
인물	원작에서 ‘몇’으로 지칭된 인물을 소설에서는 농부, 청년 사내, 노인 등으로 개별화해야겠군.……①
사건	원작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상황을 소설에서 유지하되 지나치는 열차를 기다렸던 열차로 오해하는 일화를 추가해야겠군.……②
배경	원작의 시·공간인 눈 내리는 밤의 대합실을 소설의 배경으로 설정해야겠군.……③
서술자	원작에서 설정된 1인칭 화자를 소설의 1인칭 서술자로 차용하여 인물의 내면을 섬세하게 드러내야겠군.……④
분위기	원작의 시구를 활용하며 소설의 인물과 공간을 묘사함으로써 원작의 이미지를 소설에서 구현해야겠군.……⑤

[46~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메시지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시 텍스트 또한 여타의 의사소통처럼 ‘누가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의 소통 구조에는 화자, 메시지, 청자, 그리고 맥락이라는 요소가 존재한다.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체인 ‘화자’와 그 말을 듣는 ‘청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화자와 청자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리고 ㉠다양한 시어들이 화자나 청자와 어떤 관계를 지니는가 작품의 크고 작은 부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에서 화자는 다시 ‘드러난 화자’와 ‘숨은 화자’로, 청자 역시 ‘드러난 청자’와 ‘숨은 청자’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는 메시지 전달과 수용의 주체에 따라 ‘드러난 화자-드러난 청자’ 유형, ‘드러난 화자-숨은 청자’ 유형, ‘숨은 화자-드러난 청자’ 유형, ‘숨은 화자-숨은 청자’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게 된다.

첫째, ‘드러난 화자-드러난 청자’ 유형은 작품의 표면에 화자와 청자가 각기 명시되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대화의 국면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자와 청자 간의 소통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둘째, ‘드러난 화자-숨은 청자’ 유형의 경우 청자는 화자와 달리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데, 이 유형의 작품은 화자의 경험과 그에 따른 생각과 감정이 일방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독백적인 성격의 시일 때가 많다. 셋째, ‘숨은 화자-드러난 청자’ 유형의 작품들은 화자와 달리 청자만 시의 표면에 드러나므로, 서간체형식을 띠든지 권유나 명령의 진술 방식을 통해 주제가 지닌 당위성을 강조할 때가 많다. 끝으로 ‘숨은 화자-숨은 청자’ 유형은 화자와 청자 모두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단순히 화자의 존재가 표면에 언급되지 않고 청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작품일 때도 많지만, 이른바 사물이나 즉물시처럼 데생을 하듯 대상을 그리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화자와 청자의 존재를 소거하는 경우도 있다.

(나)

일어서라 폴아 / 일어서라 폴아  
 땅 위 거름이란 거름 다 모아  
 구름송이 하늘 구름송이들 다 끌어들이  
 끈질긴 뿌리로 굵힌 얼굴로 / 빛나라 너희 터지는  
 목청 어영차 / 천지에 뿌려라  
 이제 부는 바람들 / 전부 너희 숨소리 지나온 것  
 이제 꾸는 꿈들 / 전부 너희 몸에 맺혀 있던 것  
 저 바다 집채 파도도 / 너희 이파리 스쳐 왔다  
 너희 그림자 만지며 왔다  
 일어서라 폴아 / 일어서라 폴아  
 이 세상 숨소리 빗물로 쏟아지면 / 빗물 마시고  
 흰 눈으로 펄펄 피부으면 / 가슴 한아름  
 쓰러지는 폴아 / 영차 어영차 / 빛나라 너희  
 죽은 듯 엎드려 / 실눈 뜨고 있는 것들  
 - 강은교, 「일어서라 폴아」

(다)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  
 이렇게 길을 따라 나를 견게 하는 그이들이  
 지금 조릿대밭 눕히며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이름 모를 풀꽃들 문득 나를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와서  
 내 가슴 벽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안다  
 그러기에 짐승처럼 그이들 옛 내음이라도 맡고 싶어  
 나는 자꾸 집을 떠나고  
 그때마다 서울을 버리는 일에 신명 나지 않았더냐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도  
 힘이 다하여 비칠거리는 발걸음들도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 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나는 배웠다  
 그것이 부질없는 되풀이라 하더라도  
 그 부질없음 쌓이고 쌓여져서 마침내 길을 만들고  
 길 따라 그이들을 따라 오르는 일  
 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를 나는 안다  
 - 이성부, 「산길에서」

46. (가)를 바탕으로 할 때,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나)는 청자가 의인화된 존재인 ‘폴’로 특정된 ‘숨은 화자-드러난 청자’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 ㄴ. (나)의 ‘일어서라’와 ‘빛나라’는 화자가 청자에게 하는 명령의 진술 방식을 통해 주제가 지닌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 ㄷ. (다)는 청자가 특정되지 않은 작품으로, ‘뒤늦게나마 나는 배웠다’에서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자신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ㄹ. (다)의 ‘그때마다 서울을 버리는 일에 신명 나지 않았더냐’는 화자와 청자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대화적 국면을 조성하는 유형의 특징을 보여 준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⑤ ㄴ, ㄷ, ㄹ

47. ㉠을 고려하여 ㉡와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상징하고, ㉢는 화자의 순수함을 강조한다.
- ② ㉡는 화자가 자학하는 이유가 되고, ㉢는 화자가 추구하는 목표가 된다.
- ③ ㉡는 화자와 청자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강화한다.
- ④ ㉡는 청자가 지닌 가치를 부각해 주고, ㉢는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이들을 환기한다.
- ⑤ ㉡는 청자의 과거 모습을 가리키고, ㉢는 화자가 시간을 초월해 나타난 분신에 해당한다.

48. (나)와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사구로 시상을 종결하여 여운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 ⑤ 경어체를 구사하여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49. <보기>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민중의 고난 극복을 중심으로 역사를 파악하는 ‘고난사관(苦難史觀)’에서는 고난이란 인간이 약육강식의 단계를 넘어 인간다움을 획득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생명의 원리이며, 인류의 원죄를 정화하고 승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관점에 따르면 민중은 지배 세력의 억압에 의한 시련 속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으로 제자리를 지켰고, 자신들의 잠재력과 외부 동력을 조화시켜 권력의 부패나 외세의 침략에 맞서면서 역사를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 ① (나)의 ‘일어서라 풀아’와 ‘끈질긴 뿌리로 굽힌 얼굴로 / 빛나라 너희 터지는 / 목청 어영차 / 천지에 뿌려라’에는 민중이 강인한 생명력으로 고난을 극복할 것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나)의 ‘이 세상 숨소리 빗물로 쏟아지면 / 빗물 마시고’와 ‘죽은 듯 엎드려 / 실눈 뜨고 있는 것들’은 민중이 인류의 원죄를 정화하기 위해 마치 약육강식의 질서를 수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모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나)의 ‘거름이란 거름 다 모아 / 구름송이 하늘 구름송이들 다 끌어들여’와 ‘이제 꾸는 꿈들 / 전부 너희 몸에 맺혀 있던 것’은 민중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 동력과 자신들의 잠재력을 조화시키는 점과 관련지어 해석해 볼 수 있겠군.
- ④ (다)의 ‘짐승처럼 그들이 옛 내음이라도 맡고 싶어 / 나는 자꾸 집을 떠나고’와 ‘길 따라 그이들을 따라 오르는 일’에는 과거 민중이 보여 준 고난 극복의 의지를 본받겠다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다)의 ‘힘이 다하여 비칠거리는 발걸음들도 /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 놓고 사라진다’와 ‘그 부질없음 쌓이고 쌓여져서 마침내 길을 만들고’는 고난을 이겨 내려 노력한 수많은 무명의 민중에 의해 역사가 발전하게 된다는 믿음과 관련이 있겠군.

[50~5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학에서 현실을 반영하는 형식 중 하나가 풍자이다. 풍자는 표현의 대상이 되는 현실의 특징, 현실을 바라보는 주체의 태도, 이를 표현하는 방법에서 다른 형식과는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 우선 풍자가 표현하려는 것은 현실의 부정적 측면이다. 사회적 모순이나 가치의 전도가 현실의 문제로 인식될수록 문학은 이를 풍자로 대응하고자 한다. 이때 풍자의 주체가 취하는 태도는 현실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다. 주체는 인식적·가치적 우위를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를 폭로하

고 공격한다. 주목할 점은 풍자에서 비판은 웃음을 동반한다는 점이다. 풍자의 웃음은 대상을 비웃거나 업신여기는 냉소로, 이를 위해 풍자의 주체는 현실의 문제를 직설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희화화나 자기 폭로 등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A]

풍자는 현실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독자가 그러한 현실에 냉소하게 하는 문학 양식이다. 이때 풍자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주체는 대부분 서술자이다. 작가는 자신의 의식을 대변하는 서술자를 내세워 부정적 인물의 행동을 희화화하거나 그러한 인물을 비난하는 다른 인물의 목소리를 부각하면서 독자의 비판적 인식을 끌어낸다. 반면 서술자가 풍자의 대상이 되는 작품도 있다. 이런 작품에서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비난이나 조롱은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서술자의 부정적 측면은 그의 말하기에서 무지와 부도덕함이 드러나는 자기 폭로의 방식으로 부각되며 독자의 냉소를 끌어낸다.

이러한 풍자를 우리 문학사에서 수준 높게 구사한 작가로 채만식과 이문구를 들 수 있다. 채만식은 「태평천하」, 「치숙」 등의 작품을 통해 일제 강점기 총독부의 우민화 정책과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전도된 가치의식을 비판하였다. 채만식의 풍자를 계승하는 이문구는 1970년대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산업화되고 근대화되면서 농촌 공동체가 연대 의식을 잃고 속물화되는 문제를 소시민적 인물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독자의 냉소를 이끌었다.

(나)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우리 집 다이쇼가 나를 자별히 귀애하고 신용을 하니깐 인제 한 십 년만 더 있으면 한밑천 들어서 따로 장사를 시켜 줄 그런 눈치거든요.

그러거들랑 그것을 언덕 삼아 가지고 나는 삼십 년 동안 예순 살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십만 원을 모을 작정이지요. 십만 원이면 최선 부자로 쳐도 천석꾼이니 뭐, 평평거리고 살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이쇼도 한 말이 있고 하니까 나는 내지인 규수한테로 장가를 들래요. 다이쇼가 다 알아서 암전한 자리를 골라 중매까지 서 준다고 그랬어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요.

나는 최선 여자는 거저 주어도 싫어요.

구식 여자는 암전은 해도 무식해서 내지인하고 교제하는데 안됐고, 신식 여자는 식자나 들었다는 게 건방져서 못쓰고, 도무지 그래서 최선 여자는 신식이고 구식이고 다 제바리여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 뭐. 인물이 개개 일자로 이쁘겠다, 암전하겠다, 상냥하겠다, 지식이 있어도 건방지지 않겠다, 줌이나 좋아!

그리고 내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



인 성명으로 같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 옷을 입고 밥도 내지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

내지인 학교라야지 죄선 학교는 너절해서 아이들 버려 놓거나 꼭 알맞지요.

그리고 나도 죄선말은 싹 걷어치우고 국어만 쓰지요.

이렇게 다 생활 법식부터도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처럼 잘 모으게 되거든요.

(중략)

“사람이란 것은 누구를 물론허구 말이다, 아침하는 것같이 더러운 게 없느니라.” / “아침이요?”

“저 위로는 제왕, 밑으로는 걸인, 그 모든 사람이 위선 지방이 제도의 이 세상에서 말이다, 제가꿈 제 분수대루 살어가는데 있어서 말이다, 제 개성을 속여 가면서꺼정 ㉠생활에다가 아침하는 것같이 더러운 것이 없고, 그런 사람같이 가련한 사람은 없느니라. 사람이란 건 밥 두 그릇이 하필 밥 한 그릇보다 더 배가 부른 건 아니니까.” / “그건 무슨 뜻인데요?”

“네가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성명까지 같고 모든 생활 법도를 일본화하겠다는 것이 말이다.”

“네, 그게 좋잖어요?”

“그것이 말이다, 진실로 깊은 교양이나 어진 지혜의 판단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도 모를 노릇이겠지.

그렇지만 나는 보매, 네가 그런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그러는 것 같다.”

“다른 뜻이라니요?” / “네 주인의 비위를 맞추고, 이웃의 비위를 맞추고 하자고…….”

“그야 물론이지요! 다이쇼의 신용을 받아야 하고, 이웃 내지인들하구도 좋게 지내야지요. 그래야 할 게 아니겠어요?”

“…….”

“아저씨는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시오. 나이는 나보담 많구 대학교 공부까지 했어도 일찌감치 고생살이를 한 나만큼 세상 물정은 모릅니다. 지방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시우?”

“이 애?” / “네?”

“네가 방금 세상 물정이랬지?” / “네.”

“앞길이 환하니 트였다구 그랬지?” / “네.”

“환갑까지 십만 원 모은다구 그랬지?” / “네.”

“네가 말하는 세상 물정하구 내가 말하려는 세상 물정하구 내용이 다르기도 하지만, 세상 물정이란 건 그야말로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 “네?”

“사람이란 건 제아무리 날구 뛰어도 이 세상에 형적 없이 그러나 세차게 주욱 흘러가는 힘, 그게 말하자면 세상 물정이겠는데, 결국 그것의 지배하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별수가 없는 거다.” / “네?”

“쉽게 말하면 계획이나 기회를 아무리 억지루 만들어 놓아도 결과가 뜻대루는 안 된단 말이다.”

- 채만식, 「치숙」

(다)

그날 반상회는 안양, 시흥 지역의 ㉡수재민 의연금 각출을 위한 토의가 가장 중요한 안건이었다.

서울 물도 먹고 했으니 그만한 눈치쯤은 누구보다도 먼저 어림했을 사람이 황이었다. 그러나 황은 성수기가 되어 값이 채기\* 전에 마을 공동으로 황새기것을 사야 한다느니 김장에 쓸 소금을 모개\*홍정해다 나누자느니, 하며 ㉢제 배 불릴 소리만 지껄였던 것이다. 빈말로라도 동네 형편 생각하여 가을에 주기로 하고 값이 솟기 전에 어협에 직접 거간\*을 넣어 험직하게 떼어다가 나누자는 소리 한마디만 섞었더라도 그다지 밋살맞게 여기지는 않았을지 몰랐다. 이재민 구호품으로 집집이 쌀 두 되, 돈으로 육백 원 이상, 그리고 입던 옷가지와 간장, 된장, 고추장 따위를 얹어 내기로 결정을 본 뒤에도 황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소리만 씨월거렸던 것이다.

(중략)

반상회 이튿날 아침, 어머니회 회장 창근 어매와 부녀회 회장 구충서 아내는 간장, 된장, 고추장, 옷가지 따위를 걷으러 김이 끌어 주는 리어카를 앞세워 나가고,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와 반장은 경운기를 빌려 쌀을 걷으러 나섰는데, TV를 통해 수재민들의 딱한 꼴을 여러 날 본 데다가 반상회의 결의도 있고 하여, ㉣어느 집을 가도 군소리 한마디 섞지 않고 옷은 낫으로 반겨 주었다. 하지만 리어카를 달고 나섰던 아낙네들은 황선주네 집에 이르러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지 않을 수 없었다. 김이 리어카를 끌고 그 집 발마당에 들어서는데 황은 안마루에서 자두를 한 소쿠리 따다 놓고 한창 술 담글 채비로 바쁜 중이었다. 김은 내외를 하자는게 아니라 반찬 추렴\*은 아낙네들 소관이므로 뉘 집에 가도 울안 출입을 삼가고 있었다.

충서 안과 창근 어매가 울안으로 들어간 사이 김은 마당 귀퉁이 대추나무 그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런데 들어갔으면 얼른 간장이나 한 양푼하고 입던 옷가지를 얻어 나와야 할 사람들이 담배 한 대를 다 털도록 꿩 구워 먹은 소식이었다. 김은 물꼬를 봐야 하고 손대어야 할 그루밭도 한두 군데 아닌데 웬 늑장인가 싶어 속이 상했다. 참다못해 김이

“아따 창근 엄니, 메주를 쑤유 장을 대리유? 왜 그리 꿈지럭그리슈?” /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니

“아니, 수재민들은 뻥쓰두 안 입는단 말유?” / 하는 황의 거친 목소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이윽고

“㉤그럼 이 돈은 이따 쌀 걷는 사람들이 오걸랑 그리 주셔유. 나는 책임질 수 읍으닝께.”

하며 돈으로 낸 것을 창근 어매가 도로 무르는 소리에 이어, 다시 황이 못마땅한 어조로

“메뚜기 마빡만 현 동네서 이재민 구호물자 한 볼팅이 것으으러 땡기는디 패를 가를 건 뉘여. 오는 사람 성가시구 주는 사람 구찮으니까 온 짐에 아주 받아 가슈.” / 하고 내뱉는 소리가 겹쳤다.

“누구는 이랄 머리 읊어 이러구 땡긴다남유. 어채피 올 테 닝께 그리 쥐유.”

충서 안에서도 황에게 밀리려 하지 않았다.

“아따, 망건 쓰나 탕건 쓰나 살쩍 밀기는 일반이랍디다. ㉠ 읊어 가는 사람이 찬밥 더운밥 가릴 저를 있겠수. 이 동네 아 줘니들은 위째서 이리 까닥스럽다유?”

황은 비아냥거리듯이 말했다. / “은어 가다니유?”

충서 안사람이 부르튼 소리를 하는데 창근 어매 복장 터져 하는 소리가 결바대로 들렸다.

“춘자 아버지두, 우리가 지방 춘자 아버지 입던 뺨쓰를 은 으러 왔단 말유? 희치희치허구\* 낚음낚음헌 혼뺨쓰를…… 뺨 쓰 장수가 보면 불쌍해서 하나 그저 주게 생긴 걸레를 은으 러 예까장 펄렁그리구 왔대유? 세상에 원…….”

미루어 보건대 이재민 구호 물품이랍시고 황이 입던 팬츠 를 내놓은 모양이었다. 김은 구경만 하고 있잠도 아니요, 그 렇다고 남의 집 안에 들어가 사내 여편네가 남남끼리 하필 팬츠를 놓고 가가거겨하는 옆에서 옆들이 하잠도 아닌 듯하 여 부찌지 못하고 있었다. 황이 말했다.

“챙근 엄니는…… 말을 귀루 안 듣구 입으로 들유? 수재민 이라구 훗것\*만 입으라는 뺨이 위디 있슈. 그러면 그 사람들 이 한 끄니래두 끓이라구 추렴해 준 양식 팔어 뺨쓰버텀 사 입으야 쓰겠수? 게, 다 나두 생각이 있어 내논 겐디 템세\* 나 를 트집힐류? 말에 도장 읊다구 함부로 입방아 찧지 마유. 이 게 왜 혼 게유.

㉡남대문 표는 삼 년을 입어두 새물내만 낚디다유. 공중\* 넘우세스럽게시리\* 이유 삼지 말구 얼릉 탄 디나 가 보유.” / “…….”

두 여자는 입이 모자라 말뭇을 못 대는지 잠잠했으나, 그냥 두면 나중엔 별 못 할 소리가 없을 것 같았다.

김이 말했다.

“아따나…… 챙근 엄니두 예지간허슈. 애초 저기헌 사람허 구 저기했으야 말이지…… 야중\*에 다 저기허는 수 있으니께 그냥 주는 대루 받아 나오슈. 이러다가는 일 품 매구 해넘이 허겠슈.”

그 말을 계제\* 삼아 창근 어매가 말했다.

“㉢남뎨문이구 앞뎨문이구 간에 수재민 고쟁이 걱정허는 사람은 팔도강산에 느티울 춘자 아버지뿐일쥬. 확실히 ㉣우리 게는 꽃동네 새동네여.”

- 이문구, 「우리 동네 황 씨」

\*채기: 물건값이 오르기. \*모개: 죄다 한데 묶은 수효.

\*거간: 사고파는 사람 사이에 들어 흥정을 붙임. 또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

\*추렴: 모임이나 놀이 또는 잔치 따위의 비용으로 여럿이 각각 얼마 씩의 돈을 내어 거둬.

\*희치희치허구: 피륙이나 종이 따위가 군데군데 치이거나 미어진 데 가 있고.

\*훗것: 한 겹으로 지은 옷. \*템세: ‘도리어’의 방언.

\*공중: 공연히. \*넘우세스럽게시리: 남에게 놀림과 비웃음을 받을 듯

하게.

\*야중: ‘나중’의 방언. \*계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 회.

50. 세상 물정과 관련된 (가)의 인물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적 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세상 물정’을 근거로 모든 생활 법도를 일본식으로 바꾸려고 한다.
- ② ‘나’는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성공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③ ‘나’는 자신이 학식이 많은 아저씨보다 ‘세상 물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④ 아저씨는 ‘나’에게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는 ‘세상 물정’을 반 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 ⑤ 아저씨는 ‘세상 물정’을 사람의 의지로는 어찌하기 어려운 세계의 지배적인 힘이라고 생각한다.

51. (다)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은 수재민 의연금을 내지 않으려고 반상회에 불참한다.
- ② 이장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운기를 빌려 수재민을 위한 쌀을 건는다.
- ③ 김은 황의 집에 들어간 두 여자가 늦도록 나오지 않자 소 리를 지르며 재촉한다.
- ④ 창근 어매는 황이 속옷을 구호 물품으로 내놓은 사실에 분 노한다.
- ⑤ 구충서 아내는 황이 받아 가라며 준 돈을 당장 받지 않으 려고 한다.

52. <보기>를 바탕으로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문구의 소설이 지닌 특징 중 하나는 개성적인 문체이다. 탈춤, 판소리 사설 등 구어성이 강한 서사의 전통을 잇고 있는 그의 소설은 고유어와 방언, 속담과 관용구 등 우리말의 어휘와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우리 문학의 전통에서 웃음을 위해 활용한 언어유희, 과장, 열거, 반어 등의 표현 방식을 풍부하게 사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 ① ㉠: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도와주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뜻의 속담으로, 창근 어매가 수재민을 위해 구호 물품의 기 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다.
- ② ㉡: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배부른 행동을 한다.’라는 뜻

의 관용구를 활용한 말로, 황이 구호 물품을 건으러 온 사람들을 비꼬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표현이다.

- ③ ㉠: '남대문에서 만든 옷은 삼 년이 지나도 깨끗하다.'라는 뜻의 과장된 말로, 황이 자신이 내놓은 구호 물품이 가치가 있음을 강변하는 표현이다.
- ④ ㉡: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로, 구호 물품이 가치가 있다는 황의 주장을 무시하는 표현이다.
- ⑤ ㉢: '정답고 화목한 동네'라는 뜻의 '꽃동네'를 반어적으로 쓴 말로, 황의 이기적인 태도를 조롱하는 표현이다.

53. [A]를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서 서술자는 자신에 대한 말하기를 통해 풍자의 대상임을 스스로 드러낸다.
- ② (나)에서 풍자의 대상은 다른 인물을 설명하고 평가하면서 자신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낸다.
- ③ (다)에서 서술자는 풍자의 주체가 되어 특정 인물을 풍자의 대상으로 부각한다.
- ④ (다)에서 풍자의 대상은 서술자를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자신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낸다.
- ⑤ (나)와 (다) 모두 풍자의 대상이 지닌 부정적 측면은 다른 인물의 말을 통해 부각된다.

54. (가)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총독부의 우민화 정책에 따른 친일적 가치관으로, 식민지 시대의 전도된 가치를 드러낸다.
- ② ㉡: 우민화 정책에 동조하는 인물이 지닌 속물성을 문제 삼는 아저씨의 비판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황 씨가 악용하려는 자리로, 근대화된 농촌의 속물적 인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 ④ ㉣: 농촌 공동체의 소시민적 인물을 향한 비판과 조롱이 드러난다.
- ⑤ ㉤: 농촌 공동체의 소통 부재를 비꼬는 표현으로, 독자의 냉소를 자아낸다.